



통일대화정책개발자료 : 86-19

86-12-104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狀況 變化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1986. 12.

國 土 統 一 院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狀況 變化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國 土 統 一 院

86-12-104
C-2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統一對話政策 開發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狀況 變化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1986. 12.

研究執筆責任: 朴 春 三

(略歷)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졸업
(경제학박사 1970)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박사과정수료
(1984)
국방대학원 교수 (1979 ~ 현재)

國 土 統 一 院

目 次

第 1 章 序 論	3
第 2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背景	5
第 1 節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經濟改革概念	5
第 2 節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助長的側面과 抑制的側面	7
1 . 經濟改革의 助長的側面	8
2 . 經濟改革의 抑制的側面	11
第 3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展開過程	14
第 1 節 概 況	14
第 2 節 段階別 改革	17
1 . 改革 第 1 期	17
2 . 改革 第 2 期	19
3 . 改革 第 3 期	24
第 4 章 國別 經濟改革	26
第 1 節 中共의 經濟改革	26
第 2 節 헝가리의 經濟改革	39
第 3 節 蘇聯의 經濟改革	46
第 4 節 東獨의 經濟改革	53
第 5 節 經濟改革의 主要部門別 內容要約	62
第 5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類型	69
第 1 節 웰쉬 (Welsh) 의 分類	69

第 2 節	몬티아스 (Montias)의 分類	71
第 3 節	빌진스키 (Wuilczynski)의 分類	75
第 4 節	鈴木輝二 渡邊博二의 分類	77
第 6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成果	88
第 1 節	經濟改革類型과 經濟實績評價	88
第 2 節	中共의 經濟改革 成果	90
第 7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이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98
第 1 節	北韓의 經濟體制	98
第 2 節	北韓經濟의 改革必要性	99
第 3 節	經濟改革의 조직	103
第 4 節	經濟改革의 抑制要因	107
第 5 節	經濟改革의 展望	108

第1章 序 論

1950年代 中期 以後부터 「脫스탈린化」라는 政治的 環境造成과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表面化되기 시작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外延的 成長의 限界라는 經濟的動向에 의해 社會主義 國家들은 從來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改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6年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社會主義로 가는길은 多樣하다」는 可能性을 蘇聯 指導者들이 認識하게 되면서 社會主義經濟體制는 多樣化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2次大戰前 政治, 社會, 經濟面에서 西歐의 生活패턴을 體驗하였고 특히 經濟發展 與件도 人口, 資源등 人的, 物的資源의 自體供給能力이 크게 不足되어 對外貿易指向型 開發을 追求해야 되는 經濟的 特性和 與件을 가진 東歐諸國들은 經濟開發의 패턴을 外延的 成長方式에서 集約的 成長方式으로 轉換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成長方式의 轉換은 곧 經濟效率의 増大를 圖謀하기위한 制度, 計劃, 管理面에서의 分權化와 市場메카니즘의 導入, 利潤概念의 導入 및 對西方 經濟交流의 擴大 現象으로 나타났다.

특히 共產圈의 宗主的 勢力인 蘇聯 自體도 후르쉬초프 以後 經濟改革을 斷行하여 온 以來 특히 고르바초프 政權의 登場 以後 이러한 經濟改革의 움직임은 더욱 加速化되고 있다.

또한 中共도 實用主義路線의 登場과 더불어 大幅的인 經濟改革을 斷行하여 分權化에 加一層 拍車를 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歐諸國들과 마찬가지로 外國資本의 直·合作投資를 許容하는등 資本主義 市場原理를 그대로 導入하여 多大한 經濟成果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北韓을 둘러싼 共產圈國家들의 거센 經濟改革의 물결은 沈滯된 北韓經濟에도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알바니아와 더불어 共產圈國家內에서도 唯一하게 中央集權的 命令 經濟體制를 固守해온 北韓이 1984 年에 合營法을 制定·公布한것도 그 影響의 一環이라 하겠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共產圈國家들의 經濟狀況變化를 經濟改革에 그 視角의 焦點을 맞추어 共產圈國家들의 經濟改革의 實驗的 事例들을 把握함으로써 向後 北韓經濟의 改革方向을 判斷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第2章 社會主義 經濟改革的 背景

第1節 社會主義體制的 經濟改革概念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改革은 通常 經濟體制的 構造와 運營의 變化 또는 특히 改善을 의미한다.¹⁾ 그러나 經濟改革에 대한 概念을 正確히 定義하기는 매우 어렵다. 例를들면 每日每日의 比較的 적은 節次上의 變化까지도 包含시켜야 하느냐 또는 基本的인 經濟體制의 分類까지도 變化시켜야 할만큼 커다란 變化만을 包含시키는 概念으로 制限시켜야 하느냐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後者の 例로는 일찌기 中央集權화된 經濟計劃體制에서 離脫하여 勞動者 自主管理制度와 더불어 市場經濟體制를 導入한 尤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分明히 우리가 典型的으로 經濟改革이라고 말하는 通常的인 概念은 社會主義 經濟體制 內에서 일어나는 根本的인 變化, 그러나 經濟體制的 分類上 社會主義 經濟體制領域은 뛰어넘지 않는 改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經濟體制가 經濟的인 面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社會, 이데올로기등 여러가지 多樣한 要素의 複合된 바탕위에서 形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에서 大部分의 經濟改革은 計劃과 企業管理를 實行하는 方法을 變化시키려고 하는데 주로 焦點을 두어 왔다. 이러한 變化들은 組織上의 것일 수도 있고, 또는 特定

註1) Morris Bornstein, "Introduction" Morris Bornstein ed., Plan and Market: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3), pp.1-22.

한 決定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實行하는 水準에서의 變化도 包含될 수 있다. 이러한 變化들은 典型的인 既存 組織을 調整하는 範圍內에서 이루어 지거나 또는 既存 組織構造에 새로운 組織을 添加시키거나 또는 既存의 意思決定單位를 除去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意思決定을 하기위하여 利用된 메카니즘의 - 例를들면 市場型指示 (Market-type Directives)에 反對되는 計劃型指示 (Plan-type Directives)間的 均衡 - 變化이다. 大部分의 經濟改革 手段은 計劃과 指示를 樹立하는 사람과 下位水準에서 그 指示를 執行하는 사람들의 行爲를 調和시키는데 焦點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變化들에는 情報의 흐름을 改善하고 보다 優秀한 獎勵制度를 만들려는 試圖가 包含된다.

이러한 모든 變化들은 1960年代初 以來 大部分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에서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大部分의 變化들은 變化하는 與件에서 効率的인 資源配分の 必要性에 經濟體制가 適合하여 잘 機能하도록 하게 하는 方向으로 展開되어왔다.²⁾ 즉 經濟開發 初期段階에는 投入量을 增大시킴으로서 產出量을 增大시킬 수 있었지만 後期段階에서는 投入量의 供給制限으로 根本적으로 產出量의 增加는 生産性向上을 통해 이룰수 밖에 없게 되었다. 社會主義計劃經濟는 資本主義 經濟에 비해 生産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成長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經濟計劃과 改革에 있어서 가장 強調하고 있는것이 바로 生産性向上 問題이다.

註 2) Paul R. Gregory & Robert C.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ufflin Company, 1980), p.40.

이러한 視角에서 볼때 결국 社會主義 經濟改革이 바로 外延的인 工業化方式 (Extensive Mode of Industrialization)에서 集約的인 工業化方式 (Intensive Mode of Industrialization)으로 經濟制度를 轉換시키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³⁾ 그리고 이러한 改革의 範圍에는, 計劃메카니즘, 經濟管理 및 行政, 價格, 利潤, 인센티브, 財政, 金融, 生産과 販賣, 對外貿易등의 分野가 包含된다.

第 2 節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助長的 要因과 抑制的 要因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改革은 廣義의 概念에서 보면 政治, 經濟, 社會, 歷史등 諸分野의 要因 以外에도 그나라의 民族問題, 宗教問題까지도 有機的으로 作用한 複合된 性格을 지니고 있다.⁴⁾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의 改革要因을 糾明하기 위하여는 上記한 要因들을 모두 對象으로 하여야 하는것이 妥當하다. 이는 한나라의 經濟體制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上記한 모든 分野에서 要求된 必要性和 必然성이 結合되어 形成된 것이기 때문에 그 改革의 必要性도 多面的인 것에서 糾明되어야 한다.

註 3)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26.

註 4) Zbigniew M. Fallenbuchl (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Vol.1,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Chap.1. Political Aspects of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rzej Korbonski) Chap.3. Social Consequence of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Walter D. Cornor).

이러한 면 정치, 社會的側面이 주로 經濟改革을 沮止하는 抵抗的 分野라면⁵⁾, 經濟的側面은 주로 社會主義 經濟의 集約的發展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政策的, 制度的 變更이라는 肯定的, 助長的 分野라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經濟改革의 助長的 側面인 經濟分野에서의 改革原因과 沮止的 側面인 政治, 社會 分野에서의 改革沮止原因을 各己 區分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1. 經濟改革의 助長的 側面

社會主義 經濟改革을 促發시킨 가장 基本的인 原因은 무엇보다 社會主義經濟의 成長率 鈍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傳統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는 豊富한 天然資源과 非熟練勞動力을 갖고 있으면서도 相對적으로 經濟가 落後되었던 蘇聯이 急速한 工業化와 軍事力の 增強을 위해 採擇한 模型이었다.⁶⁾ 1917年 볼세비키革命에 의한 社會主義化 政策을 實施하기 直前 제정러시아經濟는 典型的인 工業化 初期의 農業國이었다. 領土는 世界에서 제일크고 賦存資源도 豊富하였으나 世界 工業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불과 2.6%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工業生産에 있어서는 主要先進資本主義國에 비하여 50 ~ 100

註 5) Morris Bornstein,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in East European Economies Post Helsinki,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GPO, 1977, pp.102-133.

註 6) J. Wilczynski, op.cit pp.25-26.

年이나 뒤떨어져 있었다.⁷⁾

이러한 經濟與件下에서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모델」은 특히 1950年代 末까지의 經濟發展水準이 낮은 初期 段階에서는 重工業에의 集中投資, 農業部門의 集團化를 통한 勞動力의 吸收 및 強制動員과 같은 外延的成長方式은 蘇聯經濟의 成長速度를 比較的 高度化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實績은 大部分의 社會主義國家들 즉 中央集權的 計劃「모델」을 採擇한 國家들에서는 共通的 經驗이었다.⁸⁾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工業化가 一定段階에 도달하면서 부터 資本生産性이 줄어들고 資本產出量比率 (Capital-Output Ratio)이 漸增하기 시작하였다.⁹⁾ 즉 最高政治水準에서 이루어진 資本形成의 決定이 投資效率性에 대한 一貫된 經濟的 分析이 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固定設備의 配分이 無償으로 이루어 짐으로서 構造的으로 資本生産性を 떨어트렸다. 또한 拙劣한 投資計劃으로 인해 事業이 途中에 中止되거나 完了期間의 延長으로 資本의 浪費가 增加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目標成長率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量보다 더 많은 投資量이 要求되었다.¹⁰⁾ 이러한 現象은 土地部問에서도 發生하였다. 社會的 所有가 된 土地는 各企業들로 하여금 土地의 效率的

註 7) 木原正雄, ソ連邦の社會主義經濟 (法律文化社, 1961), p.41.

8)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4th edi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p. 53-56.

9) R. Selucky,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Political Background and Economic Significa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3.

10)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op.cit., p.35.

使用을 刺戟치 못함으로서 過多한 土地의 占有現象을 가져왔다.

특히 農業部門에서의 集團化 營農方式은 單位面積當 土地生産性を 極도로 低下시켰다. 루마니아를 除外한 大部分의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이 傳統的인 食糧輸出國에서 大量 輸入國으로 된것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또한 中央集權的 計劃體制의 限界로 經濟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計劃指標의 數가 늘어나게 됨으로서 결국 中央計劃當局의 管理能力 限界를 초과하게 되었다. 특히 社會主義의 外延的 成長에 따른 經濟的 損失이 情報體制와 目標設定 下達의 過誤때문에 發生하였다. 이를테면 企業은 낮은 目標量을 割當받는 대신에 過多한 投入物을 要求함으로서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였다.

그리고 政府에 의해 主導되는 不均衡價格은 計劃樹立에 必要한 充分한 情報를 提供해 주지 못하였다. 資源配分의 意思決定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이 市場價格인데 中央集權的 計劃方式은 計劃作成 段階에서 消費와 生産 各部門間의 均衡을 保障하기 위하여 人爲的으로 造作된 價格을 使用하였기 때문에 資源의 配分을 더욱 歪曲시켰다. 그리고 國民經濟의 增大와 더불어 貧困狀態를 벗어나게 되면서 부터 國民들의 消費生活水準 向上에 대한 欲求가 점차 증가하여 制限的 이기는 하지만 典型的인 販賣者市場 (Seller's Market)에서 購買者市場으로 轉換하면서 計劃經濟體制와 더불어 市場의 需給을 反映하는 價格體系가 더욱 要求되었다.¹¹⁾

註 11) P.G. Hare, H.K. Radice, W. Swain (ed),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pp.5-6.

한편 個人의 利益보다는 全體의 利益을 人間行動의 動機로 標做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特性에서 緣由한 精神的 補償制度 (Moral Incentive System)의 實施 結果, 勞動生産性이 극도로 低調하였다. 또한 物量的인 目標 達成 여부에 따른 企業의 成果 評價制度는 勞動意欲을 鼓吹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創意力を 誘發시키지 못함으로써 効率性を 鈍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以上에서 列舉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成長의 全般的 變化와 成長「템포」의 鈍化를 背景으로 各國은 다시 經濟計劃管理「시스템」의 缺陷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共產圈國家들의 經濟改革의 背景이다.

그런데 各國의 經濟改革은 共通的인 目的을 내세우고 있다. 즉 ①勞動生産性, 資本効率, 資源·에너지利用効率등 經濟效率의 根本적인 向上, ②品質의 向上, ③國際競爭力의 向上, ④技術革新등으로 要約되는데 이들 目的은 相互依存的 聯關性を 가지고 있다.¹²⁾

2. 經濟改革의 抑制的側面

지금까지 살펴본 經濟改革의 強力한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理由로 해서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의 一部 勢力들은 改革에 반대해 왔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즉 一部 政治指導者들과 이데올로기 主義者들은 市場, 資本 및 土地使用料 그리고 利潤獲得을 위한 生産 및 物質的補償制度 (Ma-

註 12) 平泉公雄, ソ連·東歐諸国における經濟改革の新たなうねり, アジア 經濟 1985.8 (アジア經濟研究所, ISSN. 0002-2942, 1985), p.5.

terial Incentive System)에 의존하는 것은 社會主義와 調和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例를들면 文化革命期에 中共에서 특히 強力하였다.¹³⁾

또 一部에서는 經濟改革이 國民經濟의 主要方向에 대한 黨의 統制力을 喪失하게 하거나 또는 經濟分野에서의 自由화가 文化, 社會 그리고 政治分野에까지 波及되어 自由化를 要求하게 되지 않을까하고 두려워 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이 1968年 蘇聯의 체코 侵攻을 促進하여 事實上 보다 綜合적이었고 全般的이었던 체코의 經濟改革案을 霧散시켜 버렸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典型的으로 抑制된 인플레이션과 完全雇傭의 狀態下에서 運營되기 때문에 經濟改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政府分配와 政權에 대한 國民들의 好意的인 態度에 影響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失業問題가 經濟改革의 結果로 發生할 것 이라는데 대해 가장 두려움이 되었다.¹⁴⁾ 또한 利潤極大化와 賃金基金 (Wage Fund)의 使用에 있어서의 自律性 또는 豫算支援의 減縮 結果로 해서 失業이 發生하고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註 13)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 Growth and Structural Change-(Colorado: Westview Press, 1982), pp.270-272.

14) Marer, Paul,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Selected Aspect of the Hungarian Experience, Draft Paper for IMF European Department, 1982, Oct. Quoted in Peter T. Night,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The Experience of China, Hungary, Romania, and Yugoslavia-(The World Bank, 1983), pp.20.

생각하였다. 그리고 收益性이 없는 商品의 生産 減縮과 賃金決定에 있어서 管理者에 대한 大幅的인 自由權 賦與는 國家的 次元에서의 巨視經濟政策이 完全雇傭을 指向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磨擦的失業이나 構造的失業을 誘發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 하였다. 특히 헝가리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였다.

특히 一部 利害關係가 얽혀있는 그룹들은 經濟改革에 더욱 反對하는 傾向이 있었다. 즉 黨機構와 行政官僚들은 만일 企業들이 市場에 카니즘에 自由롭게 對應한다면 그들의 權限을 喪失할것으로 우려하였다. 經營能力 보다는 政治的인 信賴性 때문에 進化된 管理者들은 競爭的인 購買者 市場에서 商品을 販賣하게되는 經濟改革에 대해 反對立場을 取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勞働者들과 勞働組合들은 經濟改革과 關聯된 價格變化가 그들의 實質所得에 미칠 影響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즉 消費者價格體系의 合理化는 食料品이나 大衆交通, 煖房燃料, 住宅과 같은 一部 基本的인 消費財나 서비스에 대한 現行 補助金 支給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점에 대해 우려하였다.

第 3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展開過程

第 1 節 概 況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經濟改革에 대한 助長的要因과 抑制的要因이 混在하고 있었지만 外延的成長의 限界는 不可避하게 集約的成長으로 移行될 수 밖에 없게 됨에 따라 必然的으로 社會主義國家들은 經濟改革을 推進하게 되었다.

그런데 傳統的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는 1930 年代에 대대적으로 急速한 工業化와 軍事力의 強化를 達成하기 위하여 尠大한 未熟練 勞動力과 資源을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後進國이었던 蘇聯에서 처음으로 實行되었다. 典型的으로 高度成長을 위한 嚴格한 計劃, 完全 保護下의 輸入代替 工業化, 높은 投資率, 完全雇傭, 價格安定, 所得不均衡의 制限등 以上 여러 目標와 關聯된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政策은 커다란 成功을 거두었다.¹⁵⁾

그후 이러한 모델은 1940 年代와 1950 年代 初에 걸쳐 東歐諸國

註 15) Nuti, Demenico Mario, Industrial Enterprise in Poland, 1973~1980: Economic Policies and Reforms, in: Jefferies (1981), pp.39~62. 이 以外에도 初期 蘇聯型모델의 成功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學者들도 認定하고 있다.

Wriles, J.D.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2) Nov. Alec,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Second Revised Edition, (New York: Prederick A Praeger, 1969).

Kaser, Michael, Soviet Econom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과 中共, 北韓 등에서 採用되었다. 그런데 東歐諸國중 체코와 東獨은 第2次大戰 末期에 이미 相對적으로 工業化되어 있었다. 그리고 工業部門으로 移動할 수 있는 農業部門에서의 剩餘勞動力이 相對적으로 거의 없었다. 폴란드와 헝가리도 덜 工業化되어 있었지만 活用하지 않은 수많은 農業部門에서의 勞動力을 保有하고 있었던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보다는 더 發展되어 있었다. 이들 國家들은 蘇聯과는 달리 經濟規模가 적었고 蘇聯과 같은 無差別的인 輸入代替的 工業化를 推進하기 위한 潛在적인 國內市場과 資源이 모두 不足하였다. 때문에 이들 國家들은 蘇聯이나 中共과는 달리 構造的으로 對外指向的 (Foreign Trade Oriented)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構造的인 面에서의 蘇聯과의 差異點 以外에도 政治적으로 大部分의 東歐共產圈 國家들이 外部設計에 의해 強要된 革命으로¹⁶⁾ 共產化되어 蘇聯「모델」을 追從하였기 때문에 經濟改革의 움직임이 이들 地域에서 시작되었다.

蘇聯型「모델」의 缺陷이 蘇聯 自身보다도 東歐社會主義 諸國에서 처음으로 일어난것은 이러한 經濟, 政治的인 面에서 起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經濟的 與件에서 볼때 1917年 當時의 蘇聯과는 달리, 이들 國家들이 傳統的인 中央集權的 計劃「모델」을 導入하였을 때 이미 상당히 높은 水準의 經濟開發과 社會的 多樣性 그리고 民主制度의 成長에 도달되어 있었다.

註 16) Robert, C. Tucker, The Marxian Revolutionary Idea (New York: The Norton Library, 1970), Chap. 5.

이러한 蘇聯型 傳統的인 「모델」에서 根本的인 變化를 斷行한 最初の 國家는 1948年 코민포름(Cominform)에서 離脫된 유고였다. 1950년에 시작된 유고의 經濟改革 推進勢力들은 蘇聯型國家 社會主義와는 區別되는 自主管理 社會主義 社會를 建設하려는 광범위한 試圖의 一環으로 經濟改革을 構想하였다. 이에대해서 유고는 國家의 役割은 점차 줄이고 國家의 指示보다는 市場메카니즘에 점차 反應하는 自主管理企業에 有利하게 改革이 推進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起伏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50年 以來 이러한 過程이 持續되었다. 1965년에는 中央計劃을 終了시키는 重要的 措置를 斷行하였다. 그후 1970年代에 自主管理 概念과 市場메카니즘에 의한 廣範圍한 誘導(Guidance) 概念과 兩立할 수 있는 計劃樹立形態를 開發하려는 試圖에서 또다른 主要한 變化를 經驗한 유고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Socialist Market System)는 獨特한 것이다. 現在에도 유고는 企業의 意思決定을 引導하기 위하여 市場메카니즘에 보다 더 依存하는 方向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共產圈 國家들에서의 一部 改革들은 보다 광범위한 政治的變化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지만 大部分의 東歐諸國과 中共에서의 經濟改革은 根本的으로 보다 커다란 經濟的 效率性을 追求하는데서 나온 自然的인 結果였다.¹⁷⁾ 1968년에 가장 急進的인 改革 靑寫眞을 가지고 있었으나 蘇聯의 沮止에 의해 改革案이 霧散되어버린 체코 조

註 17) Knight T. Peter,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The Experience of China, Hungary, Romania and Yigoslavia -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79, Management and Development Subseries: No.6, (1983). p.17.

차도 規制된 市場에 카니즘을 통하여 보다 効率的이고 또한 經濟的 要求를 보다 잘 採擇한 中央集權的 計劃原理를 지지하고 있다.¹⁸⁾

그런데 蘇聯「블럭」內에서의 經濟改革은 1953~1960, 1964~1970, 그리고 1970年代末부터 現在까지 3번에 걸친 派動이 있었다.¹⁹⁾

第 2 節 段階別 經濟改革

1. 改革 第 1 期

첫번째 改革물결은 1950年代 初의 유고(1950~1952), 헝가리(1953~1954), 체코(1953~1954) 그리고 東獨(1954~1955), 폴란드(1960), 蘇聯(1961), 루마니아(1963)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50年代末과 1960年代 初에 經濟的 投資收益性이 특히 蘇聯을 包涵한 보다 工業化된 國家들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鈍化되는 經濟成長率, 漸增하는 資本-產出量比率, 販賣되지 않는 工業製品의 滯貨, 그리고 農業部門의 不振한 實績과 더불어 나타난 만성적인 生産財와 消費財의 不足現象이 不安要因으로 나타났다.

註 18) Brus, Wlodzimiere, Problems of the Incipient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Bank, (Oxford, U.K.: 1980, Sept.) p.4.

19) ① Knight T. Peter op.cit. pp.7~8.

② J.Wilczynski 는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改革의 波動을 1950年~1955年, 1956年~1960年으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1970年代 以後에 대해서는 그의 冊이 1972년에 發刊되었기 때문에 言及할 수 없었다. J.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p.47 參照바람.

1956 年의 政治的인 非스탈린化 이후 經濟專門家들은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그 必要性을 表現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問題點으로 意思決定의 지나친 中央集權化, 지나치게 仔細한 計劃, 資源配分에 있어서의 硬直된 절차, 農業部門에서의 物資投入과 物質的補償의 결여, 不合理한 價格構造, 지나치게 過欲的인 計劃들을 들었다.

1950 年代末 大部分의 東歐經濟는 絶對的인 不足을 克服할만큼 充分히 工業化되어 있었으며, 古典的인 販賣者市場에서 限定된 購買者市場으로 轉換되고 있었다. 이에 「가마니코」는 이때부터 自意的으로 指示하는 命令經濟의 特有的 不合理성이 진지하게 舉論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²⁰⁾

그런데 社會主義國家들중에서는 유고만이 命令型計劃과 管理에서 벗어나 즉 指示的 年間計劃 (Directive Annual Plans)을 거의 中止하고 價格 「메카니즘」으로 轉換하고 勞動者 自主管理制度 (Workers Self Managment)를 導入하고 이에 土地의 非集團化를 實施하였다. 그外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自由主義的 傾向으로 기울었고 經濟學者들에 의해 經濟에 대한 매우 積極적인 改革案이 樹立되었으나 스탈린主義 强硬派들의 強力한 政治的 反對때문에 이들의 計劃案은 거의 實現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 폴란드에서는 勞動者評議

註 20) Gamarnikow, Michael, Balance Sheet on Economic Reforms, in Reorientation and Commercial Relations of the Economics of Eastern Europe: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GPO, 1974), pp.164-205.

會 (Workers Councils) 가 1956 年에 合法的으로 制定되었다. 그리고 工業協會 (Industrial Associations) 들이 經濟的 . 行政과 管理에 參加하기 위하여 設立되었고 大部分의 土地가 1956 ~ 1957 年에 分散化되었다. 또한 市場「 메카니즘 」을 통한 몇가지 實驗들이 實施되었다. 1957 ~ 1959 年에는 헝가리에서 計劃과 價格決定에 一部分 權化가 導入되었다. 蘇聯에서도 1957 年에 地域的 分權化가 實行되었다.

이처럼 이들 國家에서 價格修正과 經濟運營 및 制度面에서의 調整이 있었지만 유고를 除外하고는 經濟改革이라고 할만한 變更은 없었다.²¹⁾

2. 改革 第2期

두번째 改革의 物결은 蘇聯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濟的 意思決定을 分權化하고 市場「 메카니즘 」을 보다 광범위하게 活用하려는 意圖를 發表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65 年 후루쉬초프가 失脚한 후 코쉬킨은 'E.G. Liberman²³⁾의 아이디어를 承認하였다. 이에 數 많은 強制的인 計劃指標들을 廢止하고 企業의 成果와

註 21)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p.47.

22) E.G. Liberman 은 1962 年 9 月 9 日字 「 프라우다 」紙에 「 計劃 · 利潤 · 報償 」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여 蘇聯經濟改革의 導火線이 되었다. 이에 대한 詳細한 內容은 다음 책을 참조바람. Gregory Grossman, Economic Reforms: A Balance Sheet, Problems of Communism, Nov-Dec, 1966, (Washington, D. C.: US Information Agency, 1966)

企業運營에 대한 評價를 利潤率을 基準으로 하였다.²³⁾

그러나 蘇聯의 이러한 改革은 1965年當時 改革의 原則에서 實際로 後退하였다.²⁴⁾

東獨은 一種의 部門的인 行政的 分權화와 垂直的 統合制度를 1958年初에 導入하였는데 1960年代 末과 1970年代 初에 더욱 強化하였다. 즉 1970年代의 再集權化期에 企業의 統合化, 企業聯合(VVB)의 組織化를 積極적으로 推進하였다. 1970년에 企業聯合의 數는 80~90個였다.²⁵⁾ 그리고 通常 企業聯合 밑에 또는 때로는 企業聯合 안에 콤비나트(Kombinat)라고 하는 다른 組織形態 즉 純粹한 行政組織이라기 보다는 運用組織으로 企業聯合과는 다른 매우 깊은 關聯이 있는 經濟活動을 하는 企業郡을 만들었다. 그런데 企業聯合은 同業種生産企業의 水平的 統合體인데, 經營組織으로 位置하고 있지만 實質적으로는 行政的 中間管理機關이었다. 이에 비해 콤비나트는 垂直的 統合體이다. 相互 依存的 諸企業에 의한 統合體이기 때

註 23) 現在 社會主義國家들에서 利用되고 있는 利潤率指數算式은 다음과 같다.

$$R = \frac{Q(D - C)}{F + V}$$

여기서 R = 利潤率

Q = 販賣量

D = 販賣價格

C = 平均價格

F = 固定資產의 年 平均額

V = 流動資產의 年 平均額

24) Nove, Alec. The Soviet Industrial Enterprise, Chapter 2, in Jefferies (1983), pp.29-38.

25) Granick, David, Enterprise Guidance in Eastern Europe: A Comparison of four Socialist Economies (New York: Princeton Univ. Press, 1975), p.39.

문에 傘下 諸企業에 대한 콤비나트의 支配力은 그 技術的 基盤으로 해서 企業聯合보다 훨씬 強力했으며, 法的으로도 콤비나트의 長은 傘下 企業間의 生産能力 再編成등 企業聯合에는 없었던 權限을 賦與받았다. 이러한 東獨의 모델은 다른 나라들 특히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蘇聯에서 一部 模倣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再組織은 東獨은 經濟實績을 平均水準 以上으로 維持하면서 生産을 合理化하고 供給을 正常化하는데 成功을 거두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製造業部門의 企業間 競爭이 世界市場에서 점차 必要하다고 認識한것이 1967年 루마니아의 部分的 分權化를 하게한 動機였으며, 그리고 헝가리가 1968年에 中央當局으로 부터의 具體的이고 物量的인 計劃體制를 撤廢하는 主要한 改革을 着手하게 한 主要 動機였다. 이 改革들은 價格과 其外 間接的인 經濟的 調整手段 이룰테면 利子, 換率, 租稅, 企業의 活動을 指導하기 위한 補助金등에 依存하였다.

資源이 不足하고 國際貿易과 特化를 통해 얻을 수 있는 利益을 無視할 수 없는 貧困國家인 헝가리에서의 經濟改革은 수많은 經濟問題에 대한 實用主義的인 反應으로 나타났다.²⁶⁾ 즉 헝가리는 1960年代 初에 빈번한 貿易收支의 赤字, 農業部門에서 工業部門으로 移轉할 수 있는 勞動力의 不足, 商品의 質과 多樣性を 包含한 供給

註 26) Portes, Richard, Hungary: Economic Performance, Policy and Prospects, in East European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GPO, 1977, August, 25, pp.766-815.

과 需要構造의 不一致, 投資財에 대한 過剩需要, 增加하는 資本-產
出量比率, 勞動生産性的 低調, 革新과 技術進步의 全般的인 缺如 등의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향가리는 무엇보다도 總輸出의 3/4
에 該當하는 工產品과 加工農產物을 輸出하는 國際市場에서 競爭力
을 強化시킬 必要가 있었다. 이를위해 특히 意思決定을 신속히 하
기 위하여 國內生産企業과 海外市場間에 直接 交易할 수 있게 하
였다. 따라서 官僚的인 干涉을 排除하고 企業管理者와 勞動者들에게
政府로 부터의 補助金 支給없이 輸出需要에 즉각 對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大幅的인 物質的補償制度를 實施하였다.

한편 유고에서의 分權化 및 市場指向的 그리고 勞動者 自主管理
制度에 대한 움직임은 1961年과 1962年에 經濟成長이 鈍化되었을
때, 혹독한 批判을 받았다. 게다가 다음해에는 심각한 國際收支의 赤
字現象이 일어났다. 이때 主要 批判對象은 價格에 대한 行政統制 制
度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1965年의 改革(實際로는 1964~1967
年에 施行되었음)은 企業에 보다 많은 自律權을 賦與하고, 國民經
濟에서 計劃機關과 國家의 役割을 制限하고, 相對價格의 오래된 歪
曲現象을 改善함으로써 投資와 產出間의 패턴을 向上시키고, 大幅的
인 平價切下 및 對外貿易의 自由化를 통해서, 國民經濟를 보다 世
界經濟에 密接히 結合시킴으로서 企業의 生産 效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도록 設計되었다.²⁷⁾ 이에따라 유고는 資源配分을 위한 一般的
이고 가장 效率的인 메카니즘으로서 市場活用度를 점차 擴大하였다.

註 27) Dubey, Vined, Yugoslavia ; Development with Decen-
tralization, (Baltimore & London: John Hopkins Univ.
Press, 1975).

그러나 1970年代 初에 企業과 銀行間의 充分한 協力없이 企業들이 生産活動을 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國民經濟와 社會的目標를 고려치 않는데 대해 새로운 關心이 쏟렸다. 이에 關係機關들은 市場「메카니즘」을 통한 事後的 調整은 원래 浪費的이고, 高度의 事前的 調整과 計劃이 不足한 資源의 合理的 使用을 保障하고 地域間 不均等과 같은 構造的 不均衡을 是正할 수 있으며 또한 計劃과 勞動者自主管理制度가 서로 調和될 수 있다고 確信하였다. 1974年 憲法과 그 後의 經濟改革에서 이러한 確信이 具體化되었다. 즉 經濟體制를 構成하는 主要한 核心으로서 市場을 받아들이지만 社會主義原則과 勞動者自主管理制度가 보다 調和되도록 더욱 制限하였다.²⁸⁾

그후 1960年代 末, 알바니아를 除外한 모든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은 公式的으로 經濟改革에 대한 몇가지 種類의 計劃을 採擇하였다. 그러나 유고와 헝가리를 除外하고는 大部分 國家들의 經濟改革들은 傳統的인 中央計劃에 根本的인 變化를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 大部分의 國家들은 결국은 改革의 熱氣가 식었거나 아니면 中央集權的計劃經濟體制로 다시 後退하였다.

그러나 다음年代에 들어와서 다시 經濟改革 必要性에 대한 새로운 狀況이 나타났다. 즉 1970年代 東歐諸國에 대한 蘇聯의 에너지 및 粗原料의 每年 輸出增加率이 떨어지고 또한 絶對量 自體가 늘어나지 않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交易에 있어서 東歐諸國의 交

註 28) Schrenk, Martin, Cyrus Ardalan, and Natal A. EL. Tatawy, Yugoslavia: Self-Management Socialism and the Challenges of Development. (Baltimore and London: John Hopkins Univ. Press, 1979). p.78.

易條件이 絶對적으로 不利하였다.²⁹⁾

이와같은 事態發展으로 東歐 CMEA 國家들은 다시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絶對히 느끼게 되었다. 東歐諸國중 重要한 產油國인 루마니아도 國內需要가 國內供給을 超過한 1970 년에 石油를 輸入하였다.

1976 年 以後 부터는 輸入된 原油費用이 精製된 商品의 輸出額을 超過하였는데 이러한 現象은 특히 第 2 次 石油波動 以後 더욱 심하였다.

3. 改革 第 3 期

第 3 次 改革의 물결은 이때부터 東歐諸國을 비롯하여 中共, 蘇聯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動機는 各已 相異하였다.

즉 東歐諸國은 이때부터 西歐의 公共借款 및 民間借款을 本格的으로 導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1 년에 폴란드가 導入借款에 대한 元利金 償還을 延期하였고 1982 년에는 루마니아도 연기 하였다. 그리고 1982 年 末에는 유고, 루마니아, 헝가리가 모두 IMF 의 Standby Credits 를 交渉하였다. 現在는 東歐諸國에 대한 信用供與가 완전히 中斷되었는데 이는 政治的인 理由이기도 하지만, 世界經濟의 沈滯때문에 더 以上 東歐圈에 輸出을 늘릴수 없는것도 그 理由중의 하나였다. 이에 「마러」³⁰⁾가 指摘하였듯이 이러한 狀況下에서 이들 國家들이 不振한 經濟實績을 改善하기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가장 可能한 「메카니즘」은 經濟的 效率性を 向上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곧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大幅 修正하는 것이었

註 29) Peter T, Knight, op.cit. p.17.

30) Peter T. Knight, op.cit., p.18.

다.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그 개혁의範圍는 넘지않지만 루마니아가 1970年代末에 새로운經濟改革을着手하였다. 交易條件이改善되고 投資率도 계속增加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즈네프以後 蘇聯에서도 새로운經濟改革을 해야 한다는要求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고도 企業이 意思決定을 함에 있어서 國際市場價格, 市場「메카니즘」, 金融의 役割을 더욱 強化하였으며, 東獨, 체코, 불가리아도 새로운經濟改革을着手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經濟改革의 第3의 物결期에 特記할것은 中共의 大幅的인 經濟改革이다.

第 4 章 國別 經濟改革

第 1 節 中共의 經濟改革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第 3 의 物결期間中에서 가장 改革의 幅이 큰것이 中共이다. 中共은 1949 年 新政權을 樹立한 後 1952 年까지 일단 復興政策을 끝낸 다음 1953 年부터 經濟計劃을 樹立하여 本格的인 經濟改革을 着手하면서 蘇聯型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모델을 採擇하였다.¹⁾

그후 1961 ~ 1965 年間的 調整期에 物質的 補償制度和 自留地(Private Plots of Land) 農產物市場, 企業의 自由裁量權등을 許容한 것²⁾ 除外하고는 1978 年에 經濟改革을 하기 以前까지의 全期間을 통해 強力한 中央集權的 統制經濟로 一貫하여 왔다.

1978 年 以後에 斷行된 中共의 經濟改革은 行政單位와 經濟單位의 低調한 管理와 效率性을 向上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이를 위해 ①이들單位에 보다 많은 責任과 自由裁量權을 賦與하고 ②所得과 보너스를 보다 直接的으로 產出量과 生産에 連結시키고 ③이들의 活動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市場과 間接的인 經濟的 手段에 보다 依存하는 反面 行政的 措置는 크게 減縮시켰다 中共의 이러한 經濟改革의 過程은 政治權力의 再編성과 더불어 國民生活과 直接 關聯되는 輕工業에 力點을 두는 調整期의 產業政策을 再現하

註 1)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Growth and Structural Change -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2), p.261.

2) ibid, p.269.

면서 對外貿易을 重視하는 開放政策을 實施하고 있는 것이 特徵的
이다.³⁾

中共에서 經濟改革이 시작된 것은 1978年 12月 中國共產黨 11期
3中全會의 決定에서부터 였다. 여기서 中共은 黨의 活動中心을 經
濟建設에 두고 對外開放, 對內經濟活性化 및 農業部門에서의 生産責
任制를 導入키로 하였다. 1979年 7月 中外合資 經營企業法을 制定하
여 外資를 活用, 中共經濟를 近代化 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從來의
獨立, 自主, 自力更生으로부터의 逸脫이다.

그런데 中共의 經濟改革은 처음부터 精密하고 體系的인 長期計劃
案을 가지고 推進하고 있다기 보다는 1978年 以來 成果의 評價
를 통해 漸次的으로 具體化시키고 있는것이 特徵的이다. 즉 改革主
導勢力들이 처음부터 廣範圍한 改革計劃을 推進하기 보다는 漸次的
으로 改革의 成果를 分析하면서 다음 段階로 移行하는 改革過程을
推進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段階別 改革案이 뒷받침 해
준다.

(1) 調整期の 改革案

- ① 農業과 輕工業의 發展
- ② 에너지, 交通, 建設工業部門의 強化
- ③ 財政支出의 縮小 (특히 基本建設의 縮小)
- ④ 既存企業의 整頓과 再編成
- ⑤ 科學, 教育, 文化事業의 發展과 人材養成
- ⑥ 技術導入, 外國資本의 活用, 輸出增大

註 3) Peter T. Knight, op.cit., p.44.

- ⑦ 經濟管理體制的 改革
- ⑧ 物價安定과 國內市場의 圓滑化
- ⑨ 人民의 生活水準 向上

(2) 調整再強化期の 改革案

- ① 過渡한 中央集權的 行政的計劃體制的 改革
- ② 國營企業과 銀行의 自主權擴大
- ③ 經營方式의 改革(農, 工, 商業部門의 生産請負制)
- ④ 自留地와 自由市場의 擴大
- ⑤ 勞動者, 管理者의 經營管理에의 參與權 擴大
- ⑥ 投資效率의 向上
- ⑦ 各地域, 各部門의 對外貿易과 經營權의 自律性 擴大

(3) 三中全會(中國共產黨 第12期 第3次 中央委員會: '84年10月)

에서의 改革案

- ① 經營形態의 自律化
- ② 資材調達, 生産, 販賣의 自律化
- ③ 株式會社制의 導入
- ④ 企業內部留保金の 自律運用
- ⑤ 勤勞者의 人事, 賃金 및 보너스決定의 自律化
- ⑥ 國家許容範圍內에서의 製品販賣價格의 決定 自律化
- ⑦ 政府의 管理機能에 대한 改革
 - ㉠ 經濟, 社會開發의 巨視計劃과 政策樹立
 - ㉡ 資源開發, 技術革新, 頭腦開發
 - ㉢ 地域, 部門企業間 計劃調整
 - ㉣ 에너지, 交通, 素材産業등 主要 프로젝트의 主管

- ㉔ 市場에 카니즘의 運用과 經濟關係法 制定
- ⑧ 農業近代化 施策
 - ㉕ 土地請負制 期間, 3年에서 15年以上으로 延長
 - ㉖ 生産集團內의 農家間 土地使用權의 讓渡可能
 - ㉗ 集團 또는 農民의 自己責任下에서의 企業經營許容
 - ㉘ 流通市場에 集團 또는 個人的 參與許容
 - ㉙ 商品流通에 必要的 交通手段, 諸設備의 擴充

이제 部門制 改革內容을 좀더 仔細히 보기로 한다.

1978年 12月の 第11期 3中全會에서 發表한 經濟改革은 우선 農業部門에서부터 着手되었다. 1984年 10月の 第12期 3中全會에서 이것이 都市工業部門까지 擴大되었다. 이 두部門의 共通的인 改革은 한마디로 말하면 生産責任制의 採用이다. 改革의 內容이 大幅的이었기 때문에 한번에 全國적으로 實施한것이 아니라 一部 地域의 企業에서 試驗적으로 實驗하여 보고 그 成果에 따라 서서히 擴大시켜 나가는 方法을 취했다.

農業部門의 改革: 農業部門의 改革은 1979年 農産物의 政府買入價格을 平均 20% 引上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農業生産을 刺戟하기 위하여 1980년에는 生産責任制를 導入하였다. 農業部門에서의 生産責任制는 農業生産請負制 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의 集團勞動制를 廢止하고 1家口마다 生産을 請負하는 制度이다. 具體的으로는 生産大隊와 一定한 生産을 請負하는 契約을 締結하고 生産物을 生産大隊에 納付한후 그 報酬를 받는데 請負量을 超過한 生産物은 그 農家の 追加收入으로 하는데 이경우 超過生産物을 國家가 買入하는 경우에는 價格을 引上시켜 줌으로써 農民의 生産意

慾을 고취시키는데 成功하였다.

이 生産責任制는 1980年 初에는 全國에 1%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3年 末에는 99.8%의 生産大隊가 이를 導入하여 事實上 全國에 普及되었다. 또한 生産責任制의 導入은 收益성이 높은 農産物이나 副業製品을 生産하려고 하는 農民의 意欲을 鼓吹시켜, 養殖이나 輕工業등 各種서비스業에 特化하는 專業戶를 생겨나게 하였다. 이것이 農業部門에서의 商品經濟化 推進이다.⁴⁾

農業部門에서의 또하나의 主要한 改革은 人民公社의 解體이다. 人民公社는 行政組織과 經濟活動을 一體化한 “政社合一”의 制度였는데 生産責任制의 導入으로 農家가 生産單位가 됨으로써 行政組織과 經濟活動을 分離시켰다. 1980년에 四川省에서 政社分業이 試圖되어 1985년까지는 모든 人民公社가 廢止되었다. 但, 人民公社라는 이름은 經濟組織으로서 남아 있는곳이 있을 뿐이다.

특히 1985年 1月에는 食糧과 綿花에 대해서 政府의 統一買入制度가 廢止되고 契約買入制度로 代替되었다. 契約分에 대해서 政府는 一定한 價格으로 買入하고 超過分은 市場價格으로 政府가 買入하였다.

都市, 工業部門의 改革: 이 部門에서의 改革은 1978年 10月 四川省에 있는 몇개 工場을 모델케이스로 하여 着手되었다. 이는 企業의 經營管理에 있어서 自主權을 擴大하는 方法이다. 이른바 工業部門에서의 生産責任制라 할 수 있다. 1979年 7月 國務院은 國營企業의

註 4) Vaclav Smil, Eating Better, Farming Reforms and Food in China,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5, in a World Affairs Journal, Sept, 1985), p.249.

經營管理에 대한 自主權의 擴大, 利潤留保의 實行, 固定資產稅의 徵收, 減價償却率의 引上, 信用貸付의 實行 등 5個項目에 걸친 規定을 發表하였다. 이에 따라 1980年 6月 末에는 中共의 工業總生産額에서 60%를 占하는 6,600個의 企業이 이 制度를 實驗的으로 導入하였다. 1983年 6月에는 利潤上納制를 一部 納稅制로 代替하는 改革을 實行하였다.⁵⁾ 즉 利潤의 55%를 企業所得稅로서 徵收한 것인데 이를 “利改稅”라 한다. 1984年 10月부터 完全히 이 納稅制가 制度化 되었다.

1984年에 工業部門의 改革에 대한 여러가지 政策이 漸進的으로 樹立되었는데 이중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國務院이 5월에 發表한 “國營企業의 自主權을 一段階 擴大하기 위한 暫定規定”이다. 이는 지금까지 행해온 工場長責任制의 導入 등 試行段階의 改革을 集大成한 것으로서 全國의 國營工業企業에 適用시켰는데 다음 10個項目으로 되어있다.

① 企業의 國家計劃과 國家와의 契約을 完遂하는것을 前提로 하여, 國家와 市場이 必要로 하는 製品을 獨自的으로 生産할 수 있다.

② 國家計劃 以外の 製品은 國家가 禁止하는것 以外에는 自由로 販賣할 수 있다.

③ 生産財의 自由販賣處分은 上下 20%의 幅에서 價格을 自由로 이 設定할 수 있다.

④ 計劃內 生産財의 購入에 대해서도 企業은 購入先을 選擇할 수

註 5) Christine Wong, The Second Phase of Economic Reform in China, in A World Affairs Journal (Sept. 1985), p.261.

있는 권리가 있다.

⑤ 減價償却基金의 分配는 1985年부터 企業이 70%를 留保한다. 企業이 一時的으로 使用하지 않는 生産基金은 企業外에 投資할 수 있다.

⑥ 企業은 使用하지 않는 固定資産을 貸付하거나 또는 有償으로 讓渡할 수 있다. 代身 그 收入은 반드시 技術改造와 設備를 更新하는데 使用하여야 한다.

⑦ 企業은 機構와 人員配置에 대하여 自主적으로 決定한다. 關係機關은 이에 대해서 企業에 强制할 수 없다.

⑧ 工場長과 黨委書記는 上級機關에서 任命하고 副工場長과 副書記는 工場長이 指名하여 主管機關의 認可를 얻어 任命하며, 中級幹部는 工場長이 任命한다.

⑨ 企業은 國家의 賃金標準, 地域特別 賃金を 實行하며, 全國的 統一된 補助金を 支給하는 것을 前提로 하며, 自己의 特色에 맞는 賃金形態를 選擇할 수 있다. 工場長の 裁量으로 昇級者를 總數의 1%~3%까지 定할 수 있다. 또한 企業은 獎勵金의 分配에 自主權을 가진다.

⑩ 從來의 所有形態 및 從屬關係를 變更시키지 않는 前提下에서 企業은 産業部門과 地域을 超越하여 各種의 聯合經營에 參加할 수 있다.⁶⁾

이처럼 社會主義 國家인 中共은 從來의 計劃經濟體制를 漸進적으로 改革하였다. 즉 國家計劃委員會는 1984年 12月에 指令的計劃의

註 6) 村田泰夫, 中國開放經濟(東京:教育社, 1986), pp.51 ~ 52.

範圍를 段階的으로 縮小하고 指導的 計劃의 範圍를 擴大하여 經濟原理와 市場의 役割을 重視하는 方針을 세웠다. 여기서 指令的 計劃이라는 것은 國家가 法令으로 強制力을 가지고 計劃노르마의 達成을 指示하는 것이고 指導的 計劃 이라고 하는것은 各種의 生産單位나 企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提示하고 그 實現은 價格이나 金融등의 經濟的 誘導策으로 推進하는 計劃이다.

國家計劃委員會의 方針에 의하면 農業面에서는 生産에 대해서 指導的 計劃으로 移行하여 指令的 計劃의 對象으로 하고있는 買入品目은 從來의 29 個品目에서 10 個品目으로 減少시켰다. 따라서 買入計劃을 上廻한 農産物과 對象이 되지 않는 農産物은 農民이 自由로이 賣却할 수 있다. 工業部門에서는 國家計劃委員會가 管理하는 指令的 計劃의 對象이 되는 製品을 從來의 120 餘個品目에서 60 個品目으로 줄이고 國家統一分配物資는 종래의 256 個品目에서 65 個品目으로 指令的 計劃의 對象인 商品의 種類는 종래의 65 個品目에서 20 個品目으로 그리고 輸出商品은 종래의 70 個品目에서 36 個品目으로 減少시켰다.⁷⁾

그런데 中共에서 말하는 企業은 資本主義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經濟單位인데, 工場이나 機械등의 所有形態別로는 이른바 國營인 全人民所有 企業, 市등 自治體가 所有하는 集團所有 企業以外에 外國資本을 導入한 合營企業, 個人所有인 個人經營 企業등으로 分類된다. 그외에 農村의 農業生産單位인 生産隊, 大生大隊 또는 人民公社등이 所有하고 있는 農村企業도 있는데, 이는 集團所有制 企業의

註 7) 村田泰夫, op. cit., p.53.

一種이다. 中共의 統計上에서는 이를 農業의 副業으로 取扱하여 넓은 意味에서 農業生産額에 包含시키고 있다.

1984年末 現在 中共의 商工業企業數는 前年末에 比하여 20%가 增加한 360萬個社에 달했으며, 이와 別個로 小規模 個人經營企業이 또한 900萬餘個에 달한다.⁸⁾

또한 外國資本과의 合營이나 提携企業 그리고 100% 外資企業의 合計가 1984年중에 1,500餘個社가 增加되어 總 2,300餘個社가 있다. 또한 經濟開放化의 進前에 따라, 中共에 駐在員을 두고있는 企業의 數도 1984年末까지 930個社로 前年末에 비해 300餘個社가 늘어났다.⁹⁾

價格部門의 改革: 또한 消費財의 價格이 市場에서의 需要供給에 의해 決定되는 伸縮的인 價格改革이 斷行되었다. 또한 生産財의 價格도 超過供給의 경우 伸縮的인 價格의 下落이 있었다.¹⁰⁾

지금까지의 價格은 價値도 反映치 못했을 뿐만아니라 需給關係도 反映치 못했다. 이에따라 ①同種 同類의 商品이 品質에 따른 價格差가 形成되지 못했고 ②異種商品의 價格比가 不合理하며 특히 一部 鑛産物과 原材料의 價格이 낮게 策定되었으며, ③重要的 農産物이나 農村의 副業生産物의 買入, 賣渡價格에 逆現象이 생겨, 販賣價格이 政府의 買入價格을 下廻했다는 것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不合理한 價格體系를 放置해 두면, 企業의 生産과 經營效果를 正確히 評價할 수 없으며, 都市와 農村間에 物資의 圓滑한 交流가 妨害를 받게되고, 勞動에 따른 分配가 歪曲되는등 여러가지 問題가 表面化

註 8) 村田泰夫, op.cit, p.54.

9) 村田泰夫, op.cit, p.54.

10) Peter T.K Night, op.cit, p.59.

된다. 따라서 計劃經濟나 貨金體系를 改革하더라도 무엇보다 效果的인 調節手段인 價格體系가 改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中共에서는 價格體系를 改革하는 原則으로서 다음 3가지를 들고 있다.¹¹⁾

① 等價交換의 變數와 需給關係의 變化에 立脚하여 不合理的 價格比를 調整하여 引上시킬 것은 引上시키고 引下시킬 것은 引下시킨다.

② 一部 鑛產物과 原材料의 價格을 引上시킬때 加工企業은 原材料의 消耗量이 減少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鑛產物과 原材料의 價格引上에 의한 코스트 引上分을 基本的으로는 企業內部에서 吸收한다.

③ 農產物과 農村의 副業生産物의 買入, 賣渡價格의 逆現象을 解消시켜 消費物資의 價格을 調整하는 경우에는 確實한 措置를 講究하여, 都市, 農村, 住民의 實質收入이 減少되지 않게 되어야한다.

한편 價格體系的 改革과 더불어 中共은 固定投資와 運營資本을 銀行이 融資해주는 企業의 資本調達方法으로 改革을 斷行하였다. 그리고 이경우 企業의 自律性을 大幅 擴大시켜 주고 있다. 金融改革은 또한 生産企業單位에서의 經濟的 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利率을 커다란 手段으로 活用하고 있다.¹²⁾

自力更生政策의 改革: 中共의 經濟改革은 生産單位의 刺戟, 外國技術의 導入 및 擴散으로 要約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中共의 經濟開放化政策과 經濟特區의 設定은 특히 改革의 核心을 이룬다.¹³⁾

註 11) 村田泰夫, op.cit, p.8.

12) Peter T. Knight, op.cit., p.90.

13) SHIGERU ISHIKAWA, China's Economic System Reform: Underlying Factors and Prospects, (World Development, Vol.11, No.8, 1983), p.647.

中共은 1978年 12月 第11期 3中全會에서 決定된 「對外開放」 對內經濟活性化에서 具體적으로 經濟特區와 經濟開發區를 設置하기로 하였다. 그 基本的 思想은 國內에서 動員할 수 있는 모든 積極的 要素를 動員할 뿐만 아니라, 中共經濟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外國의 모든 要素를 利用하여 世界の 長點으로 中共의 短點을 補完한다는 胡耀邦의 말과같이, 外資의 積極的 利用, 先進技術을 導入하는 모델 地區로서 經濟特區와 經濟開發區를 設置하였다. 中共은 이러한 經濟特區나 經濟開發區를 對外開放의 橋頭堡로 하여 跳躍臺의 役割을 期待하고 있다. 外國의 先進技術과 先進的인 經營管理方式을 導入하여, 이를 吸收, 消化, 改良하여 內陸地域의 經濟的 近代化에 寄與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들 地區에서 生産한 優秀한 製品을 內陸地域에 販賣하고 內陸地域으로부터 原料나 半製品을 買入하여 內陸地域의 經濟活性化에 寄與한다는 것이다.

國務院이 당초 承認한 經濟特區의 面積은 深圳이 327.5 km², 珠海 617 km², 汕頭 1.6 km², 廈門 2.5 km²였는데, 그후 深圳을 除外한 3個 特區의 面積을 약간 擴大하였다. 經濟特區가 「特區」인데 대해서 谷牧 國務委員은 1985年 1月 「經濟特區는 政治特區가 아니고, 장래의 臺灣이나 香港과 같은 一國家二制度下에서의 特別行政區域도 아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說明한 바 있다.¹⁴⁾

① 特區의 經濟開發은 주로 外資를 利用한다. 特區의 經濟는 社會主義經濟의 指導下에서 合作企業, 共同企業, 外資 100% 企業을 주로 하는 多樣한 企業이 併存한다. 이는 社會主義的 人民所有 經濟

註 14) 白權篇, 中共經濟特區에 관한 研究(KIET, 1985), pp.11~25.

를 주로하는 內陸地域과는 다르다.

② 特區의 經濟活動은 市場메카니즘에 의한 調整機能을 充分히 發揮한다. 이는 計劃에 의한 指導를 주로 하는 內陸地域과 다르다.

③ 特區에 投資하는 外國企業에는 租稅, 土地使用料, 出入口 등의 면에서 特別優待한다.

④ 特區의 行政機關에 經濟活動의 면에서 他等級의 權限 以上の 自主權을 賦與한다.

한편 經濟開發區는 既存 大都市나 近郊에서의 工業開發을 위하여 1984年 5월에 決定되었다. 中共은 全國적으로 15個所, 北으로는 大連, 秦皇島, 天津,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北海의 沿海 14個 都市와 海南島에 設置되었다. 이중에서 沿海 14個 都市는 이미 經濟가 發達하여 人力과 文化가 모여 있는 地區이다. 人口는 全國의 8%未滿 이지만, 工業生産額은 全國의 23%, 輸出은 40%를 차지하는데 開發區로 指定함으로써 外資를 導入하여 經濟開發을 더욱 加速化 하려는데 그 指定 目的이 있다.

經濟特區와 開發區가 다른것은 特區가 工業을 中心으로 하면서도 第3次産業도 包含한 綜合的인 輸出加工 都市로 建設하려고 하는데 비해, 開發區는 舊市內에 있는 既存工場의 技術을 改造하고, 近郊에 造成된 工場團地에 工場을 誘致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經濟特區나 開發區에 投資하는 外國企業에 適用하는 優待措置는 거의 비슷하다. 이 優待措置에 대하여 中共政府는 다음 7個項目을 發表하였는데 優待의 內容은 外資側에 더욱 有利한 方向으로 改善되어 있다.

① 企業의 所得稅(國稅)는 15%로 한다.

- ② 工商統一稅(地方稅)는 통상 3%인 것을免除한다.
- ③ 利潤의 海外送金稅는 免除한다.
- ④ 利潤중 再投資部分에 대한 所得稅는 免除한다.
- ⑤ 合作企業, 合併企業, 100% 出資企業이 投資하는 生産設備, 機械生産에 必要한 原材料 및 部品등의 輸入은 關稅나 輸入工商統一稅를 免除한다.
- ⑥ 外資側이 派遣하는 人員의 生活必需品에 대해서는 品目에 따라 免稅한다.
- ⑦ 投資額이 5,000 萬달러 以上인 企業, 尖端技術導入企業, 資金回收期間이 긴 分野의 企業에 대해서는 特別한 恩典을 제공한다.
- 이것이 外資側에 대한 優待措置의 骨格인데 1985年3월에 報道된 「中國通俗」에 의하면 企業所得稅를 15% 以下로 하는등 加一層의 優待案이 檢討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海外投資家가 投資한 경우 企業所得稅가 15% 以下の 稅率對象이 되는 企業을 ① 經濟特區內에 設立된 合辦, 共同經營, 全額出資企業 ②沿海開放都市의 經濟技術開發區에 設立된 生産企業(第2次産業) ③沿海開放都市의 舊市內와 汕頭, 珠海, 廈門市內에 設立된 生産企業중 技術集約型, 知識集約型的 事業, 投資額이 3,000 萬달러 以上으로 投資回收期가 긴 事業, 에너지, 交通, 港灣整備事業등을 對象으로 하고있다. 또한 上記한 企業의 所得稅, 減額條件을 갖추진 않았더라도 機械製造, 電子, 冶金, 化學, 建材, 輕工業, 紡織, 包裝, 醫療機器, 製藥, 農業, 林業, 畜産業, 養殖, 建築등의 業種으로 規定하고 있는 企業所得稅를 8.0%로부터 優待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企業所得稅의 減額에 있어서 企業이 利益을 내기 시작한 年度부터 計算하여 처음 2年間은 企業所

得稅를 免除하고 3年째부터 半減시키는 優待措置를 實施하고 있다.

第2節 헝가리의 經濟改革

헝가리는 1957年부터 實施해 온 部分的인 經濟改革이 1960年代 後半에 이르러 限界에 直面하였다. 즉 西方으로부터의 裝備購入을 위한 外貨獲得의 必要性,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에 따른 産業部門의 勞動力 吸收의 必要性, 需要, 供給의 不均衡解消, 技術進步의 鈍化에 따른 低調한 生産性的 向上등의 要求가 크게 擡頭되었다. 이에 따라 1966年 5月 外國과의 貿易을 強化하는 措置와 함께, 全般的인 經濟改革을 斷行하기로 決定하고 1968年 1月부터 新經濟制度 (New Economic Mechanism : NEM)를 導入, 適用하였다.¹⁵⁾ 市場社會主義 모델로 불리는 헝가리의 經濟改革의 主要한 特徵으로서 는 ①意思決定過程의 分權化, ②市場메카니즘의 導入, ③勞働者 自主管理로 要約할 수 있다.

즉, 中央으로부터의 規制限界 內에서이긴 하지만 企業의 自律的인 意思決定範圍가 擴大되고 企業의 成果指標도 物量基準에서 利潤指標로 바뀌었다. 그리고 利潤의 正常的인 機能을 위한 合理的인 價格決定을 위해 ①固定價格, ②最高制限價格, ③伸縮價格, ④自主價格으로 分類하여 需要, 供給에 의한 市場價格의 範圍를 擴大시켰다.

그러나 1968年부터 1971年에 걸친 헝가리의 第一次 經濟改革은 ①職業의 不安定, ②所得分配의 不平等, ③地下經濟의 擴大등 一部 勞

註 15) Andrew Zimbalist & Howard J. Sherman, Comparing Economic Systems (Florida: Academic Press Inc., 1984), pp. 407-408.

動階層을 中心으로한 不滿을 表出시켜 經濟改革에 대한 論爭을 惹起시켰다. 게다가 1973年 第1次 石油波動과 1974~1975年の 世界經濟의 景氣後退 및 交易條件의 惡化등 外部的인 影響에서 匈牙利 國內經濟를 保護하기 위하여 市場機能의 幅을 줄이고 再集權化 政策을 1978年까지 實施하였다.

이러한 再中央集權化政策은 外債의 累増과 價格의 歪曲에 따른 資源配分의 非効率을 가져왔다.

이에 다시 匈牙利는 1980年부터 第2次 經濟改革을 斷行하였다. 즉 1980年 3月에 開催된 匈牙利 社會主義勞動者黨 第12回 大會에서 다음번 大會까지의 5年間에 걸쳐, 經濟改革路線의 推進을 確認하고 이를 支持하는 黨水準의 人的組織을 整備하였다. 그리고 經濟改革의 方向으로서 ①企業의 自律性 強化와 동시에 中央管理의 強化, ②計劃시스템의 改善, ③經濟管理組織機構와 企業內 管理組織의 近代化, ④企業經營者의 活性化와 企業家精神의 提高, ⑤上·下級 企業內 管理者의 權限強化 그리고 ⑧ 勞動者의 經營參加形態로서의 工場民主主義에 從前보다도 더 많은 關心을 集中시켰다.

第12回 黨大會의 決定에 따라 大會後 經濟管理機構 各 水準에서 組織機構의 改革이 管理方式과 企業形態 兩面에서 早速히 實施되었다.

즉 1981~1983年間에 施行된 主要改革內容을 보면 첫째, 中央經濟管理機構를 再編하여, 單一工業省을 創設하고, 閣僚評議會 直屬으로 經濟委員會를 設置하였다. 둘째, 企業에 대한 經營·監督方式을 近代化 하여 企業監督委員會를 再編, 強化하고 企業長 公募制를 導入하였다. 셋째, 企業內 經營機構를 改革하여 大規模企業에 經營評議

會를 再編·強化하였다. 네째, 企業體制를 再編成하여 一部 經營이 不振한 Trust 를 解體하고, 大規模企業과 ทรั스트 一部 事業所를 獨立企業化 하였다. 다섯째로는 多様な 小規模企業의 經營形態를 創設하고 社會的 所有企業의 一部에 經營個人請負制를 導入하였다.

그후 1985年 3月 第13回 黨大會에서 經濟成長과 生活水準의 向上을 加速化한다는 目標아래 第3次 經濟改革의 構想을 採擇하였다. 이 第3次 經濟改革의 構想이 第2次 改革과 質的으로 區別되는 것은 廣範한 國有部門(中小規模 國營企業 및 大規模 國營企業의 一部)에 勞動者 自主管理 시스템의 全面的 또는 部分的 導入이다. 企業經營管理에 있어서의 勞動者의 參加를 尺度로 하여 볼 때, 第2次 改革까지는 制度上 勞動者統制의 段階라고 할 수 있다. 勿論 商品, 貨幣 諸關係 즉 市場메카니즘에 대한 計劃的 規制를 內容으로 하는 自主管理 方式이었긴 하지만, 第3次 改革은 市場메카니즘의 能動的 利用을 특히 全面的으로 開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第3次 改革의 內容을 企業內 經營管理制度와 金融制度를 中心으로 把握하고자 한다.¹⁶⁾

企業內經營管理制度의 改革 : 1984年까지 헝가리의 國營企業에 있어서는 이른바 單獨責任制인 ①部門別 長官에 의한 企業長 任命, ②企業經營에 대한 全權限의 企業長 個人에의 集中이 企業經營의 唯一한 形態였다.

그러나 1985年 以後부터, 1977年에 制定된 第6號法律을 改正하여 國營企業을 經營管理方式에서 3가지로 分割하였다. 즉 ①企業評

註 16) 平泉公雄, ハンガリー經濟改革の現段階と今後の展望(ソ連, 東歐學會年報, XIII, 1984), pp, 42 ~ 53.

議會에 의해 관리되는 企業, ②企業勞働者總會 또는 代議員 總會에 의해 관리되는 企業, ③企業長에 의해 관리되는 企業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③의 形態로 관리되는 企業은 公益企業 및 閣僚評議會에서 指定한 企業 ①의 形態로 관리되는 企業은 大企業 및 中企業 ②의 形態로 관리되는 企業은 小規模 企業으로 原則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企業評議會는 企業內 最高意思決定機關인데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가지고 있다.¹⁷⁾

- ① 企業計劃(中期, 短期)의 決定
- ② 企業貸借對照表의 承認
- ③ 企業業務分野의 大幅 變更
- ④ 投資, 信用借入, 社債發行, 生産手段의 賣却等
- ⑤ 企業內 색 손의 獨立企業化, 子會社 設立, 各種 經濟聯合體의 參加등에 관한 決定
- ⑥ 企業組織, 運營規制의 決定
- ⑦ 勞動力 雇用に 관한 重要 意思決定
- ⑧ 企業分配可能 斷行의 分配原則 決定
- ⑨ 企業長의 選任, 更迭, 勤務評價 및 企業長에 대한 其他 雇用 權의 行使
- ⑩ 企業管理의 勤勞者 總會方式으로의 再編成
- ⑪ 企業의 分割, 他企業과의 合併에 관한 決定
- ⑫ 其他 閣僚評議會의 命令 또는 決定이 企業評議會의 權限에

註 17) 平泉公雄, ハンガリー經濟改革の第3段階, (アジア經濟, 1985.8), p.39.

包舍된 諸問題에 關한 決定

以上에서 보듯이 企業評議會는 從來 部門別 監督長官과 企業長이 가지고 있던 權限을 거의 掌握하고 있다.

특히 勤勞者總會方式이 適用되는 企業에서의 企業評議會의 그것과 基本的으로도 同一하다.

그러나 企業評議會와 勤勞者總會의 基本的인 差異點은 後者가 勤勞者 全員에 의해서 또는 勤勞者가 選出한 代議員에 의해 構成되는데 대해서, 前者는 勤勞者에 의해 選出된 委員과 企業指導部가 任命한 委員도 包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企業評議會 멤버(50名以下)의 半數 以上은 勤勞者選出委員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勤勞者支配 原則은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勞動者 自主管理型 企業管理方式은 1968年 改革의 構想을 形成하는 過程에서도 論議되었지만, 1985年 以後 改革에서 특히 強調하고 있다.

金融制度의 改革: 第3次 改革의 特徵중의 하나는 官僚的 規制의 削減, 經濟活動의 營利事業化, 市場的 調整機能의 能動化를 內容으로 하는 市場메카니즘이 金融分野에까지 擴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金融改革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첫번째는 항가리 國立銀行(中央銀行)의 權限을 強化하여 行政으로부터의 獨立性을 強化하였다는 점이다. 이 銀行의 權限이 從來에는 國民經濟計劃의 範圍內에서 政府가 定한 여러가지 方針을 遂行하는데 參加하고, 獨自的인 政策決定權限은 크게 制約되어 있었는데, 1985年 以後부터는 國民經濟計劃, 國民經濟管理에 關連된 準備 및 意思決定에 參加하는 機關이 되었다. 또한 通貨量의 調節, 通貨價値의 維持, 各種 金融機關에 대

한 規制에 있어서 獨自的인 裁量權과 責任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는 이 銀行 內部에 發卷機能과 融資機能을 分離하였다는 점이다. 종래부터 헝가리 國立銀行은 中央銀行으로서의 發卷機能 이외에 一般國內企業用의 預金口座를 가지고 企業에 대한 商業銀行으로서의 融資機能을 擔當하여 왔다. 이점은 앞으로도 당분간 變化하지 않게 되어있다. 그러나 第3次 改革 以後부터는 두 機能이 同銀行 안에서 分離되어, 融資機能은 전적으로 融資部에서 擔當하게 되었다. 따라서 融資部는 組織的으로도 自主化되고 商業銀行網으로 再編成될 計劃에 있다.

이에의해 지금까지 헝가리 國立銀行을 통해서 一般企業에 融資된 大部分이 基本的으로 營利베이스가 아니라 政策的 意思決定에 의해 供與돼 오던 것이 앞으로는 營利베이스로 貸出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특히 融資部 및 그 子會社에 預金の 獲得, 金融債의 發行, 一般事業活動에서 出資등의 經濟活動도 認定하고 있다.

세째로는 多様な 金融機關을 設立할 수 있는 法的 可能性을 創出했다는 점이다. 從來 金融機關의 設立은 閣僚評議會의 權限에 屬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財務長官도 헝가리國立銀行總裁의 同意를 얻어 一般銀行, 特殊銀行 및 保險公社를 設立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既存 金融機關이 그 子會社를 設立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金融機關 以外の 一般企業 相互間에 商業信用을 供給할 수 있게 法的으로 認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9 年末까지 一般企業 相互間에 商業的 性格의 信用供與는 30日以內 支拂猶豫를 除外하고는 禁止되어 있었다. 1980年 以後에 이 禁止規定이 解除됐지만, 信用供與形式은 證券形態를 隨伴하지 않은 資金供與나 代金前

渡에만 限定되었다. 그러나 第3次 改革에서 國家財務法을 改正하여, 商業信用까지 그 範圍가 擴大되었다.

이처럼 金融에 대한 第3次改革에 의해 信用供與 채널이 多樣化 되고 각 채널間에 競爭關係를 造成하는 基盤이 形成되었다.

이러한 經濟改革에 따라, 企業들은 減價償却費의 控除比率, 純利益金, 社內留保利益金, 보너스基金 등의 決定에 있어서 보다 많은 自律權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60年代까지만 해도 總投資의 90% 정도가 政府機關, 國家企業 그리고 協同組合 등의 社會主義部門 內에서 이루어 졌는데 1970年代에는 45%만이 政府投資 였고 55%는 企業獨自의 投資였다. 그리고 近年에 와서는 企業의 獨自的인 投資중 減價償却金과 社內留保利潤으로 充分되는 投資의 比重이 1976年의 52%에서 1981년에는 69%로 增大되었다. 反面 政府의 補助金이 16%에서 6%로 줄어들었고 또한 헝가리 國立銀行으로부터의 貸出도 27%에서 20%로 減少하였다. 이는 바로 投資에 있어서 企業의 自主權이 擴大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79 ~ 1980年의 價格改革으로 自由로이 決定될 수 있는 生産財와 消費財의 價格比重이 1979년에 各已 57%, 45%로 늘어났는데 1980년에는 67%, 55%로 더욱 늘어났다. 또한 企業으로 하여금 資本을 보다 効率的으로 使用하게 하기위하여 導入되었던 資本使用料에 대한 租稅 (Capital Tax)가 不公正하다는 理由로 해서 廢止되었다. 그러나 企業에 대한 銀行의 貸出利子率は 계속 維持하여 實質利子率이 1981년에 4 ~ 5%였던 것을 6 ~ 7%로 引上시켰다. 헝가리는 또한 ①計劃된 巨視經濟的技術을 維持하도록 購買力의 增加를 統制하고, ②生活水準을 支援하고, ③社會적으로

許容된 보너스範圍 내에서 所得을 差等化하고, ④生産性を 向上시키
기 위하여, 基本賃金과 物質的 補償制를 實施하고 있다. 1980年度
稅控除後 純利潤을 가지고 勞動者 들에게 支給한 보너스額이 基本
賃金の 平均 5%였고, 管理者에게 支給한 보너스額은 平均 30~
35%였다. 勿論 이 比率은 모든 企業에 一律的인 것이 아니라 各
企業의 自體 規定에 따라 相異하다.

한편 1968년에 斷行된 經濟改革과 1980년에 시작된 改革에서도
生産手段의 國家所有에서는 根本的인 變化가 없었다. 즉 1980년의
경우, GDP 중 國家企業이 生産한 것이 63.5%, 協同組合企業에서
生産한 것이 16.5%, 그리고 더밭(Private Plots)에서 生産한
農産物을 包含한 小規模 個人企業에서 生産한 것이 9.5%이고 나
머지 10.5%는 政府서비스였다. 그후 1981년에 制定된 法에서는
15名까지 勞動者를 雇傭할 수 있는 多樣한 個人企業을 認定하였
다. 이에 의해 國家企業과 協同組合企業 所有 資産을 이들과의 契
約을 통해 勞動者들이 이들 施設을 利用하여 生産活動을 할 수 있
는 새로운 小規模 協同組合企業과 準個人企業이 許可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數가 얼마나 늘었고 이런類의 企業成果가 얼마나 成
功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¹⁸⁾

第 3 節 蘇聯의 經濟改革

1960年代 後半부터 實施된 蘇聯의 經濟改革은 크게 區分하면 ①
1960年代의 「코시킨」에 의한 經濟改革과 ② 70年代의 聯合體組織

註 18) Peter T. Knight, op.cit. pp.62-78.

에 의한 産業構造改編 그리고 ③ 80年代의 新經濟改革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60年代의 經濟改革 : 리벨만 (E.G.Liberman) 提案에 따른 經濟改革은 1965年 9월에 열린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總會에서 행한 코시킨首相의 「工業管理 및 計劃化의 改善과 工業生産의 經濟的 強化에 관하여」라는 報告가 決議案으로 採擇되고 同年 10월에 열린 最高會議에서 法律로 採擇, 公布한 다음 곧 「社會主義國營工業企業에 관한 規定」이 蘇聯邦 閣僚會議의 決定에 의하여 承認됨으로써 1966年 1月 1日부터 實施되었다.

이 改革의 基本方針은 ①計劃樹立의 改善과 企業의 經營自律權과 物質的補償의 強化와 ②工場管理組織의 改善에 대한 것으로 要約된다.

즉 計劃・管理方式과 物質的 補償에 관한 提案의 基本方針은 첫째, 國家計劃樹立의 科學的 水準을 높이는 措置였다. 이를 위해서는 ①經濟計劃에서 가장 效率的인 資源利用을 保證할것 ②計劃 속에서 科學技術의 最新成果를 工業部門의 生産過程에 신속히 導入할 것 ③長期展望計劃의 役割을 높일 것 ④科學적으로 根據가 있는 計劃立案을 위한 「노르마티브體系」를 만들어 낼 것 등이었다. 둘째로는 國民經濟의 基本的인 經濟單位인 企業이나 企業合同 (Combinat)의 經營에서의 自主성과 主導權을 擴大하는 것이었다. 세째는 獨立採算制를 強化, 發展시켜, 價格, 利潤, 賞與金, 信用과 같은 手段을 통하여 經濟的 刺戟을 強化하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方針을 實現하기 위하여 첫째, 企業의 活動을 規制하는 計

註 19) 氣賀健三 et al., 地域研究講座 : ソ連・東ヨロシパ, (ダイセモン
ト, 1970), p, 331.

劃指標를 大幅 削減, 整理하였다. 즉 從來 中央에서 下達되던 計劃 指標 40餘個를 8個로 整理하였다. 둘째로 企業이 獲得한 利潤중 企業의 積立分을 늘려 보너스, 社會文化 住宅施設基金, 生産擴張基金 으로 活用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는 投資金融과 利潤의 國庫納 入制度를 根本적으로 改編하였다. 넷째로는 技術進步와 國民經濟의 効 率性を 提高하기 위한 刺戟手段으로서 價格의 役割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都賣價格을 改正하였다.²⁰⁾

또한 工業管理機構를 改革하였다. 즉 蘇聯의 國民經濟管理機構는 元 來 長期間에 걸쳐 스탈린時代에 形成된 省을 中心으로 하는 産業 部門別 管理原則에 따라 編成되어 있었으나 후로시초프에 의해 1957 年에 大改革이 이루어져 地域原則에 따른 國民經濟會議(Sovknařhoz) 에 의한 管理方式이 採用되었던 것을 코시킨의 改革에서는 國民經 濟會議를 全廢하고 다시 工業關係省을 復活하여 部門別 原則에 의 한 管理시스템을 採用하였다. 그런데 工業管理體制로의 改革은 단순 히 스탈린時代로의 復歸가 아니라 企業의 自主性を 높이고 販賣量 이나 利潤에 의해서 企業의 實績을 評價하고 企業長이나 從業員을 物的으로 刺戟하여 經濟의 效率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그 以前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條件이었다.

70年代 聯合體組織에 의한 産業構造改編: 1970年代 末까지 適用 한 結果 企業經營의 自律性は 擴大되었지만, 不當하게 企業長이 物 的補償基金중에서 많은 몫을 收取한다거나 勞動生産性, 資本生産性的

註 20) Jan Morczewski, *Crisis in Socialist Planning Eastern Europe and The USSR*, (New York: Praegu Publishers, 1974), pp.67-68.

低調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업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현상들을 통제할 필요에서 1971년 6월부터 1978년 1월 사이에 1965년의 개혁에 대한 수정措置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實施하였다.²¹⁾

① 기업의 物質的 獎勵基金의 크기를 決定하는 規定을 보다 嚴格하게 하였다.

② 기업의 物質的 獎勵基金의 分配에 대한 嚴格한 統制가 實施되었다.

③ 投資에 使用되는 生産開發基金의 크기를 決定하는 經營者의 權限이 制限되었다.

④ 中央에서 決定하는 企業目標의 數가 다시 增加하였다.

또한 1979년 7월 蘇聯共産黨 閣僚會議는 「決定 第695號」를 採擇하여 生産性 伸張率의 低下 및 심각한 資源의 制約에 對處하기 위하여 ① 勞動需要를 制限하는 施策, ② 原材料, 에너지利用의 節約을 目標로 하는 施策, ③ 計劃化와 管理 및 全般的인 經濟效率을 向上시키기 위한 施策을 實施하였다.²²⁾

이러한 1970年代 經濟改革의 特徵은 中央集權的 計劃의 適用領域과 「고스프란」 및 省의 權限이 大幅 增大함으로서 再集權化의 傾向이 強化되었다는 점이다.

80年代의 新經濟改革: 蘇聯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도 繼續的인

註 21) *ibid*, pp.131-314.

22) Joseph S. Berliner, "Planning and Management", Abram Bergson and Herbert S. Lovine (eds), *The Soviet Economy: Toward the Year 2000*,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83), pp.358-360.

經濟改革 措置를 취하여 1981年의 行政構造改編, 1982年 都賣價格의 全般的인 改正, 안드로포프의 經濟改革의 實驗, 고르바초프의 經濟改革등 活潑한 經濟改革이 實施되고 있다. 즉 1983年7月26日 안드로포프는 「工業生産合同의 計劃化와 經濟活動에 있어서 權利擴大 및 勞動結果에 대한 生産合同의 強化에 관한 追加措置에 관하여」를 發表하여 1984年1月1日부터 聯邦 2個省과 地方共和國의 3個省에 實驗的으로 分權化措置를 實施하였다.

그런데 蘇聯經濟는 1970年代 後半부터 衰退一路에 있어왔는데 蘇聯當局은 그 原因을 ①石油를 비롯한 에너지 生産의 鈍化, 出產率 減少에 의한 勞動人口의 增加停止,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의 限界등의 要因과 ②硬直화된 官僚主義的 經濟運營 때문으로 認識하여 왔다.

이에 이의 打開策으로서 내놓은것이 바로 「經濟의 集約的發展」인데 이러한 對策은 이미 1961年 蘇聯共產黨 第3次綱領(후로시 초프綱領)중에서 가장 重點的인 政策으로서 強調한 것인데 고로바 초프도 經濟의 集約化, 効率化라고 하는 共同目標를 強調하고 있다.

즉 1985年3月 登場한 고르바초프는 上記한 目標을 위해 다음과 같은 改革手段을 動員하고 있다.²³⁾

첫째, 企業의 自主性 強化이다. 종래 蘇聯에서는 政府가 生産量의 目標, 品質目標 其他 多數의 個別指標를 企業에 下達하여 計劃生産을 하여왔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指標를 줄여 「노르마티프計劃」을 重視하고 있는데 이 計劃은 指標的計劃과는 달리 一定한 基準

註 23) 金森久雄・小川和男, コルパチ ヲ改革(東京) 時華通信社, 1985. 12), pp. 25 ~ 28.

下에서 資金을 支拂하여 原料購入, 設備投資 등에 어떻게 使用하는가를 企業의 自主的인 判斷에 맡긴다. 이에 의해 企業으로 하여금 生産費를 引下시키는 勢力을 傾注토록 誘導하고 있다.

또한 企業間 契約도 發展시키고 있다. 原材料의 購入에 있어서도 國家가 割當하지 않고 企業間 契約에 의해 하고있다. 그리고 消費財 등의 生産에 있어서도 國家가 指令하지 않고 小賣部門의 企業과 契約에 의해 品質, 디자인 등 消費者의 需要에 따라 生産한다. 또한 企業의 複合體 (Complex)를 增加시켜 直接的인 國家의 指令을 줄인다. 消費財의 生産은 地方共和國에 責任을 지우는 地方分權化를 推進하고 있다.

이처럼 1985年 3月 以後부터 고르바초프는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두 政權下에서 準備된 蘇聯의 經濟改革路線을 계속 實行하고 있는데 특히 企業의 自主權과 責任을 強化하는 經濟實驗을 1985年 現在 全工業 生産高의 50%를 生産하는 企業들에서 實施하고 있는데 1986年 移行期間을 거쳐 1987년에는 全工業部門에 適用할 計劃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行政機構面에서도 省의 廢止와 더불어 國家農工委員會를 開設하여 機械製作部門과 에너지產出部門의 省, 廳의 調整機關으로서 政府部內에 局을 設置하였다. 이외에 省, 廳과 企業間에 介在하여 있는 中央行政機關을 廢止하고 省, 廳과 企業을 直接 連結하는 이른바 二環制라고 하는 組織改革을 斷行하고 있다.²⁴⁾

둘째는 勤勞意欲의 向上이다. 이에 대해서는 賃金制度의 改善이

註 24) 重城康二, ゴルバチョフ改革の理論と實際, (世界週報, 1986 4. 15), pp.46 ~ 49.

中心이 되고 있다. 賃金水準을 生産性에 連動시키는 것과 보너스制度를 活用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또한 個別勞動者의 生産性を 引上시킬 뿐만 아니라 小그룹을 形成하여 그 그룹의 生産性에 따라 賃金を 支拂하는 方法을 實施하여 從來보다 20~30%의 生産增加를 가져온 커다란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農業部門에서는 中共과 같은 契約方式을 導入하지 않고있다. 勤勞意欲의 刺戟對策으로서 興味있는 것은 消費財, 서비스部門의 強化이다. 蘇聯에서는 第11次 5個年計劃부터 生産財部門보다도 消費財部門의 伸張率을 높이는 政策轉換이 있었다. 第12次 5個年計劃에서도 이러한 方向은 변함이 없다. 또한 觀光이나 休暇를 위한 施設을 強化하여 消費意欲을 刺戟하고 있다. 蘇聯에서는 貯蓄率이 매우 높다. 이는 賃金を 받아도 消費財가 不足하여 使用하지 못하는 非自發的 貯蓄이다. 돈을 쓸길이 없으면 勤勞意欲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蘇聯에서 消費財나 서비스施設을 增大시키고 있는것은 바로 勤勞意欲을 提高시키려는 것과 直結된다.

세제, 價格의 合理化이다. 蘇聯에서는 長期間 價格이 固定되어 왔다. 그러나 蘇聯에서는 새로운 價格體系를 檢討하고 있는데, 企業의 生産性向上 勢力을 反映할 수 있다. 새로운 價格體系를 導入하여 2~3年마다 價格을 變動시키는 變動制를 導入할 것이라 한다.

現在 蘇聯의 價格決定方式은 基本的으로 生産費+利潤 方式이다. 따라서 補助金에 의해 小賣價格의 上昇을 抑制하여 왔다. 이에 의해 企業의 合理化意欲을 鼓吹시키지 못하고, 非能率企業을 濫存시켰다. 抑制된 價格體系로 해서, 過剩需要가 發生하여 購買行列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에 蘇聯에서도 여러 가지 形態로 이 問題를 緩和하고 있다. 農產物의 自由市場을 獎勵하고 있는것은 바로 그 例의 하나이다.

고르바초프는 「經濟政策을 順調롭게 遂行하거나 새로운 商品, 進歩된 技術을 導入하는데는 價格制度의 根本적인 改善이 必要하다」고 하여 正式으로 價格政策의 重要性을 強調한 바 있다.

이처럼 蘇聯은 1986年 2月 25日에 열렸던 第 27次 共產黨大會에서 2000年까지 國民總生産을 倍로 增加시키고 勞動生産性을 150% 向上시킨다는 長期目標을 세우고 이를 위해 集約的 經濟發展政策을 中心으로 한 經濟改革을 大幅的으로 推進할 것을 發表하였는데, 蘇聯은 이를 現在 積極 推進하고 있다.

第 4 節 東獨의 經濟改革

「테크노크라트」型 改革의 代表的인 國家인 東獨은 新經濟體制 (New Economic System) 라고 하는 經濟改革을 1963年에 實施하였다. 이 改革의 特徵은 무엇보다도 經濟管理의 質的改善을 目標로 한 計劃, 管理의 分權化 였지만 集權的 計劃體制를 全面的으로 排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960年初의 經濟成長의 停滯, 특히 工業生産 成長率의 低下 (1958年, '59년에는 10%를 넘었던 成長率이 '61~'65년에는 6%로 低下했음)로 다른 東歐諸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批判이 나왔다. 그 批判의 大部分은 外延的 成長方式에서 集約的 成長方式으로의 轉換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過去의 集權的計劃體制的 陳腐化 問題였다. 近代技術의 進歩와 經濟機構의 複雜性을 反映하여 國家의 產業管理의 行政的 負擔은 過重해 졌

는데 集權的 計劃體制는 이 行政的 負擔을 解消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東獨의 經濟改革은 우선 行政的 産業管理의 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하여 産業聯合을 中心으로 하는, 産業水準의 分權化 였는데 그 特徵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²⁵⁾

- ① 指示的 計劃目標數의 減少
 - ② 國家企業聯合 (VVB) 에 대한 自主權 擴大
 - ③ 利潤指標를 基準으로 한 企業成果 評價 및 物質的 補償制度의 導入
 - ④ 企業의 投資資金에 대한 自體調達
 - ⑤ 中間財, 技術選擇 및 製品販賣의 自律性 擴大
 - ⑥ 一部企業에 대한 輸出去來 自律權 賦與
 - ⑦ 都賣價格의 客觀的 價格水準으로의 接近
 - ⑧ 資本使用料 賦課制 實施
 - ⑨ 國家企業聯合의 中央計劃樹立에의 役割 增大를 통한 分權化
- 이와같이 이 經濟改革의 特徵은 意思決定過程을 各省에서 國家企業聯合으로 分權化한 것을 첫번째로 指摘할 수 있다.

그런데 東獨에 있어서 産業聯合의 歷史는 1958 年の 産業管理機構의 再編成으로 4 個의 國家企業聯合 (VVB) 가 結成된 것이 처음인데 新經濟體制 (NES) 라고 하는 새로운 經濟改革은 이 VVB 에 生産指導權을 賦與함과 同時에 VVB 의 組織을 85 個로 擴大시켰다.²⁶⁾

註 25) R. Selucky,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Political Background and Economic Significance, op. cit., pp.61-62.

26) 五井一雄 (ed)., 現代社會主義 經濟制度論 (アジア經濟研究所, 1975), p.74.

이렇게 해서 部門內的 모든 指導的 企業은 中央의 VVB에 統轄되고, VVB는 産業部門에서 合法的인 獨占的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VVB를 強化한 目的은 計劃當局이 必要로 하는 企業의 情報를 部門레벨에서 整理하는데 있었다.

部門 獨占體로서의 地位를 賦與받은 VVB는 經濟計算原則에 의해 運營되어, 完全히 經濟的 自主性을 가지고 있으며 그 自身の 基金으로서 利潤基金, 減價償却基金, 豫備基金, 技術開發基金을 所有하여 省에 대해서는 커다란 自主權을, 構成企業에 대해서는 廣範한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즉 5個年計劃을 基礎로 한 年次計劃은 最終的으로는 強制的 課題로서 省을 통하여 VVB에 下達되는데, 이 強制的 課題는 約 80個의 特히 重要的 生產品目에 限定시켰고 其他 生産物에 대해서는 利潤計劃에 立脚하여 VVB가 部內企業을 위한 生産計劃, 投資量 및 價格을 決定하였다.²⁷⁾

이처럼 自立的 生産機關으로서의 VVB의 權限 強化와 더불어 1967年 以後 集中化政策에 의해 콤비나트(Combinat)의 形成을 促進시켰다. 大規模의 化學 金屬加工, 基礎金屬部門의 콤비나트는 VVB로부터 獨立하여 省에 直屬되어, VVB와 同一한 權限과 課題를 委讓받았다. 1973年에 이러한 콤비나트의 數는 38個가 있었다. 其外 比較的 規模가 적은 콤비나트는 VVB의 構成企業의 地位에 머물러

註 27) VVB의 生産計劃에 대해서 下達된 強制的 指標의 主要한 것으로서는 ①主要生産物(約 80個)의 價値와 數量, ②中央計劃 바란스表를 形成하는 生産物, 原料, ③主要外國貿易目標 ④ 賃金基金 ⑤主要生産物의 價格傾向 ⑥資本使用料, 利潤稅, 減價償却率, 獎勵金支出 등에 대한 長期的인 「노르마」였다.

VVB의 管理下에 있었다. 콤비나트의 母胎가 된것은 VVB의 權限으로 組織된 이른바 生産物그룹(Erzeugnis gruppen)이었다. 生産物그룹은 協力과 相互援助의 原則下에서 VVB에 所屬하는 指導的 國家企業이 中心이 되어 協同組合企業, 國家參加企業(半私企業) 및 私企業을 包括하여 形成된 生産者集團인데, 그 目的은 共同生産計劃의 作成, 專門化, 協業化의 促進이었다. 이 生産物그룹이 企業間 去來의 調整과 規制를 위해 水平的, 垂直的 또는 地域的으로 統合되었을때 콤비나트가 形成되었다. 이러한 生産物그룹의 育成에 의한 콤비나트의 形成은 VVB 自身の 調整機能을 輕減시킴과 同時에 計劃當局에 提供하는 情報量을 整理, 簡素化하여 集權的 計劃시스템의 行政的 效率를 改善하였다.

VVB나 콤비나트에 의한 集權的 計劃시스템의 再編成은 또한 計劃指標시스템의 改善를 가져왔다. 즉 ①年次計劃과 5個年計劃 作成 때에는 技術進步와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豫測한 長期展望計劃에 있어서 微視經濟的 指標에서부터 出發하고 中央計劃은 微視的 實行計劃 巨視的 經濟指標 達成에만 重點을 두게 되었다. ②計劃課題는 遂次接近法에 의해 修正된 後에, 最終的으로는 強制的 課題로서 國家計劃委員會에 의해 決定되는데, 蘇聯型 모델과 다른것은 이 強制的 計劃課題가 約 80 個의 重要品目에 限定되고 여타 모든 生産物에 대해서는 利潤指標를 中心으로 한 基礎的 指標로만 規定하였다는 점이다. 이 結果 産業聯合 및 企業에 下達된 主要한 強制的 課題는 主要 生産物の 生産額과 그 數量, 中央計劃 바만스表를 構成하는 生産物, 原料의 配分, 主要外國貿易目標, 賃金基金, 主要 生産物價格, 資本財使用料, 利潤課徵金 등에 限定되어 이들 主要 成果指標도

總利潤에서 資本使用料(固定, 流動資産의 1%~6%)를 控除한 純利潤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企業純利潤은 그 1/3이 國家에서 徵收한 後, 發展基金(80%)과 物質的補償基金(20%)을 形成하는데, 減價償却部分을 控除한 後의 企業의 發展基金은 모두 產業聯合의 發展基金으로 들어갔다.

計劃指標 시스템의 改善은 또한 產業聯合과 企業의 刺戟시스템을 改善하였다. 改革前의 企業의 獎勵基金은 總產出高指標의 達成에 依存했는데 1964年 以後에는 주로 利潤과 利潤增加率을 基準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利潤과 聯結시킨 獎勵基金에 의한 刺戟시스템은 그 重要性을 높였는데 그중 가장 重要的 變化는 企業長의 獎勵金이었다. 改革以前에는 獎勵基金에서 企業長이 받는 보너스에 대한 明確한 規定이 없었는데 1967年 以後에는 企業長과 主要 經營陣은 一般獎勵基金에서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企業長에의 特別獎勵金은 통상 產業聯合의 指導者 權限으로 企業의 生産議題, 契約등의 達成을 考慮하여 定하였다.

物質的 補償制度로서의 利潤의 計劃的 利用은 價格改革을 前提로 하였다. 改革前의 工産物의 生産者價格은 1944年 當時의 價格을 基礎로 하여 決定되었다. 價格改革은 우선 減價償却의 基礎로서 役割을 한 固定資産의 再評價에서부터 着手하여 뒤이어 基礎的 工業原料, 他中間生産物 및 最終生産物의 價格을 各已 平均 70%, 40%, 4% 引上시켰다. 이 結果 價格構造의 歪曲이 縮小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7년에는 國家의 補助金도 半減되었다. 注目되는 것은 이 價格改革에 의해 VVB나 콤비나트의 價格決定權이 모든 價格의 75

%에 이르렀다는 것과²⁸⁾ 그後 繼續 價格改革의 方法이 導入되었
다는 점이다. 연속적인 價格改革의 內容은 價格을 平均費用+利潤마
진(이 利潤마진은 費用에 比例했는데, 改革後에는 使用한 總資本에
比例하여 算定하였다)에 끊임없이 均等시키는 것인데, 이 메카니즘
은 各生産物의 收益率의 下限과 上限을 設定함으로써 作動한다. 예
를들면 個別收益率이 上限收益率을 超過하면 그것이 下限收益率과
같게 될 때까지 價格을 引下시키고, 그 反對의 경우는 反對로 한
다. VVB나 콤비나트의 産業聯合은 이 메카니즘에 의해 價格을 改
訂할 責任을 가지게 되었다. 이 方式의 目的은 價格決定者의 獨占
的 要因에 의한 超過利潤을 抑制하여 價格을 平均費用에 接近시키
려는데 있었다. 특히 小賣價格에 대해서는 變更이 加해지지 않았다.

價格決定權 만이 아니라 바란스表의 作成權도 分權化 되었다. 產
業聯合 및 企業은 이미 1959 ~ '63年 期間에는 全體의 12 ~ 14
%를 占하는 巴란스表를 作成하였는데 改革後인 60年代 後半에는
全巴란스表의 90%를 作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巴란스
表 作成은 國家計劃의 룰에 嚴格히 制限되어, VVB나 콤비나트가
配分해야 하는 總生産量은 上級計劃機關에 의해 決定되며, 또한 그
生産에 必要한 投入資源의 노르마도 資材供給省에 의해 下達되었다.
따라서 産業聯合에 남은 巴란스表 作成의 實質的 課題는 必要投入
資源量을 計算하는것인데, 生産能力과 計劃輸入의 合計가 이 産業聯
이 計算한 必要投入 資源量을 카바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産業聯合
에서 上級機關으로 巴란스表를 作成하는 課題가 移轉되게 되어 있
었다.

註 28) *ibid*, p.76.

이 産業聯이 作成한 바란스表가 有効하기 위해서는 計劃當局은 바란스表에 있는 計劃供給을 保證해야 한다. 販賣高計劃 達成이 集權的 供給시스템의 重要的 核이 되는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企業이 指令보다는 오히려 利潤 또는 收益率을 指標로 하는 刺戟시스템 下에서 生産할 때, 集權的 供給시스템은 어떻게 機能할 것인가 하는데 東獨이 新契約 시스템을 導入한 理由가 있다. 이 新契約 시스템은 計劃供給을 實現하기 위하여 企業間的 生産物 引渡契約에 關한 規定을 強化한 것이다. 만일 企業이 그 目標產出量 또는 引渡期間의 變更을 希望하면, 그 企業은 契約을 破棄한 것으로 하여, 契約破棄에 關聯되는 損失인 賠償金을 支拂할 責任이 있었는데, '65 年の 新契約法은 이 賠償規定을 嚴格히 하기 위하여 企業에 計劃遂行政策의 實施를 強制化하였다.

以上 集中化 推進, 強制的 計劃指標의 削減, 利潤指標와 횡포한 刺戟시스템의 改善, 價格改革, 新契約시스템의 導入등 東獨의 '65 年度 改革의 骨子を 보았는데 이것들은 모두 産業聯合의 自立的 經濟活動에 有利的한 環境을 造成하였다. 産業聯合은 國家의 計劃指導下에 있지만 그 計劃的 룰이 嚴格하지 않아 所屬企業 全體가 經濟的 發展 主導權을 掌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産業聯合의 自立性 擴大는 投資資金의 自己調達比率이 61%가 되어 다른 東歐諸國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또한 國家豫算에서의 投資資金 調達比率은 6%로 역시 東歐諸國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産業聯合은 이 自己資金을 통해서 部門 全體의 發展計劃을 作成할 수 있었다. 또한 産業聯合은 外國貿易에 있어서도 自主權을 取할 수 있었다. 1972 년에는 37 個의 콤비나트에서 工業生産의 1/3,

工產品 輸出의 50%를 占하였다.²⁹⁾

이와같이 하여, 東獨의 經濟改革은 産業테크노크라트의 自主權 增大에 의해 集權的 計劃 시스템의 合理化를 促進하였는데 이 合理化 過程에서 그들의 勢力增大는 黨, 國家官僚의 要求와 衝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産業테크노크라트가 바라는 國家計劃은 무엇보다도 嚴格하지 않은 計劃 (Slack Plan)인데 대해서 黨, 國家官僚의 그것은 嚴격한 計劃 (Taut Plan)이었기 때문이다.

集中化的 推進은 黨, 國家官僚에 産業管理의 行政的 責任을 輕減하는 利益을 가져왔지만 嚴格하지 않은 計劃은 嚴격한 計劃과 對立되었다. 1971年 울브리트의 退陣과 호네카의 第一書記 就任과 더불어 嚴격한 計劃을 要求하는 黨, 國家官僚의 勢力이 擡頭되면서 嚴格하지 않은 計劃을 支持하는 産業테크노크라트의 勢力은 後退하였다.

1973年 第3回 黨大會 後의 이러한 傾向은 明白해졌다. 長期展望을 主軸으로 한 計劃과 利潤極大化 行動規制만으로는 國民의 必要와 外國貿易의 目標를 充足시킬만한 充分的 生産을 確保할 수 없다는 理由에서, 높은 生産目標와 수많은 強制的 指標를 包含한 5個年計劃이 다시 強調되었다. 또한 物質的 刺戟보다는 嚴격한 計劃을 遂行한 勞動者를 勞動英雄으로 表彰하는 精神的 刺戟이 強調되었다.

1970年代의 이와같은 再集權化期에 企業의 統合化, 企業聯合(VVB)의 組織化가 積極적으로 推進되었다.

註 29) Marie Lavigne, The Socialist Economies of the Soviet Union and Europe, (London, 1974), p.44.

이어 1979 ~ 1980 年間에는 VVB가 이보다 더 大規模인 콤비나트로 再編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VVB는 同業同種 生産企業間의 水平的 統合體인데 經營組織과 位置로 볼때, 實質的으로는 行政的 中間管理機關이었는데 콤비나트는 技術的 聯關을 軸으로 여러企業을 組織한 垂直的 統合體이다. 相互 依存的 諸企業에 의한 統合體이기 때문에 傘下 諸企業에 대한 콤비나트의 支配力은 그 技術的 基盤에서 하기 때문에 VVB의 그것보다는 훨씬 強力하며, 法的으로도 콤비나트에는 傘下企業間에 生産能力 再編成과 같은 VVB에는 없는 權限이 주어지고 있다.

콤비나트體制의 確立에 이어 1981 ~ 1982 年에는 콤비나트 體制에 對應하는 計劃管理메카니즘의 基本的인 틀을 形成하였다. 이의 基本的인 性格은 中央統制의 強化에 있었다. 즉 첫째, 計劃과 經濟計算制(獨立採算制)의 보다 緊密한 結合인데 이는 다시한번 下達된 計劃諸課題는 콤비나트와 企業次元의 事情에 따라 中途에 變更하는것을 認定하지 않고 業績算定の 基準으로서 嚴格히 適用한다는 것이다. 計劃課題 中에는 ①原價計劃(商品生産量 100 마르크當 原價, 基本的 資材原價·管理原價), ②生產品目 構成, ③資材·에너지消費原單位, ④純生産(附加價值), 利潤, 企業純所得(利潤+去來稅+生産「펀드」使用料), ⑤各 프로젝트에 關聯되는 具體的인 指示나 指標, ⑥硬貨獲得, ⑦在庫의 上限이나 回轉促進課題, ⑧品質등이 包含되어 있다. 이들 投入·產出에 關聯되는 諸課題를 遂行치 못한 콤비나트에는 物質面, 地位面에서 嚴格한 制裁를 加하고 上記한 諸課題를 超過達成한 콤비나트에는 여러가지 物質的 補償을 提供하도록 하였다. 計劃諸課題는 技術革新을 前提로 하여 每年 改善하여야만 하도록 하

였다. 따라서 콤비나트 및 傘下企業은 每年 늘어나는 計劃諸課題를 遂行하려면 效率을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中央統制의 두번째 核心은 中央管理水準에서 作成되는 物材바란스表의 增大이다. 이는 콤비나트에서의 資材, 設備의 調達과 納入에 대한 直接的 中央統制가 擴大되었음을 意味한다.

이처럼 東獨型改革은 한편에서는 大規模經營 組織體制를 編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대한 中央의 統制를 強化함과 同時에 콤비나트 內部的 集權化도 推進하는 構造를 造成하였다. 이는 複雜한 産業構造下에서 集權制原理의 唯一 可能한 適用形態라고 할 수 있다.³⁰⁾

第 5 節 經濟改革의 主要內容要約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의 幅은 國家마다 相異하다. 이를테면 유고와 같이 市場改革 (Market Reform) 을 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東獨과 같이 統制機構面에서의 改革 (Bureaucratic Reform) 을 한 나라가 있어서 그 改革內容의 幅이 크다. 그러나 大體的으로 共通的인 改革內容들을 部門別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計劃 : 中央當局의 命令적이고 細分化된 指示的 計劃指標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初期의 物量單位의 計劃目標에서 價格單位로 變化하였으며, 計劃樹立過程에서도 部門別協會 (Branch Association) 나

註 30) 平泉公雄, ソ連・東歐諸國における經濟改革の新たな切り ○p. cit., p.4.

企業의 意思를 反映한 計劃으로 緩和되었다. 그리고 計劃期間도 年次計劃 中心에서 中期(5年) 및 長期(15~20年) 計劃中心으로 轉換하고 巨視的 目標計劃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移行되고 있다.

經濟管理 및 行政: 硬直的이고 官僚的인 命令體制와 下向式 細分化된 行政的 指示 대신에 部門別協會나 地域組織(Regional Bodies) 또는 企業에 自律性を 賦與하고 있다. 그리고 中央當局의 役割은 全般的인 調整에 置重하고 있으며 그 調整方法은 인센티브와 같은 經濟的 지렛대(Economic Lever)를 利用하고 있다.

價格: 中央當局에서 一方的으로 物資바란스에 基準하여 設定하던 價格制度에서 社會的費用(Social Cost)을 反映토록 하는 伸縮的인 價格制度로 바뀌었다. 또한 價格의 種類도 사치성商品이나 特定農產物(中共의 경우 自留地, 蘇聯의 경우 터밭에서 生産된 農產物)의 去來에 適用하는 自由價格(Free Prices), 政府에서 策定한 價格을 中心으로 上下 5% 範圍內에서 需給을 反映하여 變動할 수 있는 準 사치성商品 去來에 適用되는 一定範圍內에서의 自由價格(Free-Range Prices), 政府가 策定한 家庭에 必要한 商品去來에 適用되는 最高制限價格(Ceiling Prices), 그리고 生産必需 商品去來에 適用되는 固定價格(Fixed Prices)으로 多樣化 되어 있다. 또한 一部 國家에서는 國內價格을 國際價格에 連繫시키고 있다.

利潤: 資源의 浪費와 非生産性, 非創意性を 改善하기 위하여 資本主義經濟體制의 生産活動의 動機라고 하여 맹렬히 非難하던 利潤을 企業의 物量單位 目標達成 與否 評價基準代身 導入하였다. 이처럼 利潤을 企業의 成果指標로 導入함으로써 費用을 極小化하고 利潤을 極大化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그리고 總利潤중 政府에 納付하는 資

本使用料 (Capital Charges), 利子, 地代를 除外한 純利潤의 處分權은 企業의 自由裁量에 委任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센티브 : 初期의 精神的 補償制度 (Moral Incentive System), 이를테면 勞動英雄稱號를 授與한다든가 훈장을 달아주던 獎勵制度에서 物質的補償을 해주는 制度로 轉換하였다. 특히 中共의 경우는 責任生産請負制 (Responsibility System) 를 導入하여 請負量을 超過한 生産物은 生産者의 追加收入으로 許容하고 있다. 또한 企業의 總利潤중에서 租稅形式으로 政府에 納付하는 資本使用料, 地代, 利子が 차지하는 比重을 줄임으로서 企業의 純利潤幅을 擴大시켜주는 方向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企業의 純利潤이 擴大되고 이 純利潤에서 生産活動에 參與한 사람들에게 支給되는 物質的 補償額이 점차 增大되고 있다.

財政・金融 : 企業의 自律性 擴大와 더불어 嚴格한 金融責任을 企業 스스로가 지도록 하고 있다. 改革以前까지는 企業의 損失에 대해 政府가 補助金を 支給하거나 또는 價格策定에 있어서 不利한 企業의 計劃된 損失 (Planned Loss) 을 補償하던 支援制度를 廢止하고 企業스스로가 銀行으로부터 借入한 資金에 대한 利子を 減도록 改革되었다. 또한 資本財 및 土地에 대한 資本使用料, 地代를 政府에 稅金으로 納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改革前 去來稅 (Turn Over Tax) 를 통한 稅收 爲主에서 漸次 資本使用料, 利子, 地代 그리고 個人所得稅收入으로 財政收入을 調達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에 대한 直接的인 指示 대신에 伸縮的인 利子率, 稅率 및 貸出등을 통하여 管理하는 傾向이 커가고 있다.

生産과 販賣 : 販賣者市場에서 漸次 購買者市場으로 轉換됨에 따라

生産企業이 小賣 및 都賣段階에서 購買者의 기호에 맞는 商品을 生産케 誘導함으로써 改革前 一部商品은 滯貨되는 反面 一部 商品은 絶대적으로 不足한 資源의 浪費를 除去하고 있다. 이러한 誘導 方案으로서 企業의 成果에 대한 利潤率指標計算에서 當該 企業이 生産한 量을 基準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販賣한 量을 基準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企業 消費者 모두를 滿足시키고 있다.

對外貿易：傳統的인 蘇聯「모델」에서는 아우타르키 (Autarcky)를 經濟政策의 基調로 하여왔으나 經濟改革의 助長的 要因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特히 經濟規模가 적은 東歐諸國에서는 構造的으로 對外指向的 政策을 實施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社會主義國家들의 集約的成長 政策으로의 轉換은 不可避하게 西方先進國의 先進技術과 資本財등의 輸入需要를 誘發시킴으로서 經濟規模가 큰 蘇聯, 中共까지도 對外貿易指向的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이에따라 改革前까지 對外貿易을 對外貿易省의 獨占的 機能으로 集權化 하였던 것을 工業協會나 一部企業에게까지 自律權을 賦與하여 對外貿易을 特히 輸出의 效率性を 提高시키도록 誘導하는 새로운 인센티브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또한 社會主義經濟體制의 限界性으로 인한 技術의 落後性, 資本不足現象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西方과의 交易擴大는 勿論 直·合作 投資까지도 誘致하는 段階에 이르고 있다.

〈表 1〉

共產圈國家의 對外開放現況

國名	貿易 依存度	對西方 貿易比重	國際機構加入	對西方協力協定 件數 (1975)	直合作投資 許可有無
유고	45.4	78.4	GATT, IMF, IBRD, OECD 準會員國	430	許可
폴란드	33.7	50.2	GATT	250	//
루마니아	27.0	59.8	GATT, IMF, IBRD	250	//
헝가리	65.0	39.6		50	//
中共			IMF, IBRD		
불가리아	58.7	27.6	GATT 準會員國	50	//
체코	42.5	30.5	GATT	50	不許
東獨	41.9	30.3		50	//
蘇聯					//

<表 2>

共產國家의 合資·合營法

外資 合辦法 制定時期		關 聯 法	所有權의 形態	合辦企業의
유 고	舊法 1967年 法 31號 1968年 法 10號 1973年 法 22號 1978年 法 18號	1967年 聯合勞動法 1978年 債權法	社會所有	聯合勞動組織 (自主管理)
루마니아	1971年 法 1號 1972年 布告 424號, 425號	1887年 商法典	國內法上의 所有權	株式會社, 有 限會社
헝가리	1970年 法 19號 1972年 大藏長官 決定 28號 1977年 大藏長官 決定 7號	1987年 商法典 1930年 有限會社法	//	合名會社, 有 限會社, 有
불가리아	1980年 3月 25日 布告 535號	1970年 11月 28日 布告	//	파트너십 (有 있고 없는
폴란드	1976年 5月 15日 閣議決定 19/123號 1982年 7月 6日 小規模外資事業法 1979年 2月 7日 閣議決定 36號	1981年 9月 25日 國有 企業法 1934年 商法典	//	株式會社, 有 限會社, 有 會社, 파트너 所有
베트남	1977年 4月 18日 閣議決定 115號	1977年 4月 18日 合辦施行手續을 規定	//	株式會社, 有 會社
中共	1979年 7月 8日 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83年 9月 20日 同上實施條例	1980年 9月 10日 中外 合資經營企業 所得稅法 1980年 7月 26日 中外 合資經營企業 勞動管理規定 1980年 7月 26日 同上企 業登記管理辦法	//	有限會社
北韓	1984年 9月 合營法		//	

家의 合資·合營法 比較

所有權의 形態	合辦企業의 形態	外資參加比 限度	事業 分野	合辦契約의 期限
社會所有	運合勞動組織 (自主管理企業)	50%未滿, 다만 最低는 10%, 500萬데날 이상	貿易, 保險, 公益事業 을 除外한 分野	特別한 規定은 없 으나 實態는 15年, 다만 更新도 可
國內法上의 所有權	株式會社 또는 有 限會社	49% 以下	工業, 農業, 建設, 觀光, 運輸, 科學. 技術研究分野등	특별한 規定이 없고 當事者間의 合意事項
"	合名會社, 株式會社, 有限會社, 파트너쉽	原則은 49%以下, 但, 金融, 서비스部 門에는 長官의 承 認으로 50%以上도 可	製造業, 商業, 서비 스, 金融	"
"	파트너쉽 (法人格이 있고 없는 경우)	50%以上도 可	工業, 農業, 建設, 商業, 運輸, 觀光, 서비스	一般的으로 15年 但, 更新도 可
"	株式會社 또는 有 限會社 그리고 合名 會社, 파트너쉽 個人 所有	小規模로서는 100 %도 可, 一般産業 部門에서는 49% 以下	特別한 禁止部門은 없으나 82年法은 小規模 外資企業도 生産部門에서 認定 되었다.	小規模 外資의 경우 30年~40年 大規 模 合辦의 경우 15年, 但 更新도 可
"	株式會社 또는 有限 會社	30%以上 49%以 下, 다만 特定部門 으로서는 100%도 可		
"	有限會社	25% 以上	先進工業 分野外에 6部門도 特記됨	10年~30年 但, 30年 以上도 可
"		制限없음	工業, 建設, 運輸, 科學, 技術, 觀光業등	期限規定 없음

3
定
3

第 5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類型

지금까지 把握한 바와같이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의 過程과 內容은 各國家마다의 政治的 立場, 經濟開發段階, 歷史, 地理, 社會的 環境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956年 第 20次 소련 共産黨大會에서 「社會主義로의 多様な 路 (Different Paths to Socializm)의 可能性을 共産圈 宗主國인 소련의 指導者들이 認識함으로써,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을 통해 經濟體制가 多様化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改革 結果에 있어서 가장 特徵적인 것중의 하나가 바로 經濟體制的 多様化이다.¹⁾

그런데 生物學은 數世紀 동안 分類分野의 研究가 本質을 이루어 왔지만 經濟體制的 分類는 특히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多様化 以後 이들 國家들에 대한 體制的 類型化는 아직까지 初步段階로 理論的인 開發 過程에 있다.

第 1 節 웰쉬의 分類

우선 「웰쉬」²⁾의 分類에 의하면 첫째, 이데올로기의 側面과 密接히 關聯된 焦點과 黨의 主導權과 獨裁政治에 대한 焦點에 立脚한 分類이다.

註 1)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op.cit., p.54.

2) William A. Welsh, "Toward an Empirical Typology of Socialist System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ed.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5), pp.52-88.

이러한 焦點에서 그는 東歐 9 개국을 세 가지 그룹으로 分類하였다.

① 理念的으로 正統적이고 獨裁적인 分類에 屬하는 國家 : 알바니아, 소련, 루마니아

② 政治的 派閥主義, 이데올로기 論爭이 있는 것으로 特徵되는 國家 : 체코, 폴란드, 헝가리

③ 政治的 分派主義, 이데올로기 論爭이 制度化된 政治生活의 要因인 國家 : 이 分類에는 유고만이 該當된다. 그리고 1968年 1~8月까지 체코가 漸次 이 分類에 속했다.

둘째 分類는 對外政策에 焦點을 두어 親蘇的이나 여부를 기준으로 한 分類인데 이 경우에도 3 가지 그룹化는 同一하다.

① 政統派 : 소련,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② 對外政策에 있어서 보다 獨立的이지만 아직까지도 주로 소련에 의해 規定된 制限된 媒介變數 內에서 움직이는 國家 : 헝가리, 체코

③ 소련의 影響圈으로부터의 離脫範圍가 대체로 類似하지만, 그 離脫理由 및 對外政策에 있어서 각기 다른 定型이 없는 國家 :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

세째로는 本研究의 對象이 되는 經濟的 中央集權化體制의 分權化程度에 焦點을 맞춘 分類이다. 웰쉬는 이러한 焦點에 맞춘 分類에 대해서는 J. Wilczynski, Paul Gregory, Frederic L. Pryor의

分類로 代身하고 있다.³⁾

第 2 節 몬티아스의 分類

다음은 몬티아스⁴⁾의 分類內容을 보기로 한다. 몬티아스는 1960 年代末 共產圈 國家들의 ① 動員制度의 程度 ② 市場의 크기 ③ 意思決定의 分權化 또는 集權化를 基準으로 한 分類를 提示하였다.

이에 의해 그는 ① 動員的體制 (Mobilization Systems) ② 中央集權的 行政的體制 (Centralized - Administered Systems) ③ 分權的 行政體制 (Decentralized - Administered Systems) 그리고 市場社會主義體制 (Market Socializm) 으로 共產圈國家를 分類하고 이를 다시 17 個項目을 基準으로 한 分類는 < 表 3 > 과 같다.

註 3) (1)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op. cit. pp.23-25.

(2) Paul Gregory, Socialist and Nonsocialist Industrialization Patterns: A Comparative Appraisal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3) Frederic L. Pryor, Public Expenditure in Communist & Capitalist Nations (Homewood, Ill: Irwin, 1968)

4) John M. Montias, "A Classification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Comparative Economic System: Essays on Political and Economics, ed.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5), pp.39-51.

< 表 3 >

社會主義經濟의 4 가지 基準 經濟體制 類型比較

	動員化體制	中央集權化體制	分權化體制	市場社會主義體制
組 織	階層的, 機能的 또는 地域的	階層的, 機能的, 地域的	階層的, 機能的	多元的 또는 地域的
당원에 의한 노동자와 農民의 動員	높 음	낮 음	낮 음	낮 음
계층적으로 하달된 指令에의 依存	높 음	높 음	낮 음	낮 음
인센티브	精 神 的	物 質 的	物 質 的	物 質 的
生産財의 分配	優先順位에 따른 配給	計劃에 따른 配分	充分的 證據가 없음	市場 또는 非公式 配給
生産財의 價格	中央에서 決定, 任意的	中央에서 決定, 平均費用에 의거함.	部分的으로 分權化 되어 있음. 總經費用에 의거함.	市場에서 決定 中央이나 地方機關의 統制를 받음.
消費財	配 給	中央에서 決定하지만 거의 市場에서의 需給을 均衡化 시키는 價格으로 販賣	市場에서 需給을 均衡化 시키는 價格으로 販賣 一部商品價格은 企業에서 決定	市場에서의 需給을 反映한 價格으로 販賣

	動員化體制	中央集權化體制	分權化體制	市場社會主義體制
計劃의 類型 計劃樹立過程에의 企 業의 參加)	下部組織으로부터의 對應計劃	上部組織으로부터의 計劃	下部組織으로부터의 對應計劃	充分的 證據가 없음
短期資源 配分決定 調整	重點主義를 통해 함	年間計劃 또는 分權 計劃을 통해 함	中央計劃 그리고 生 產者와 그 組織과의 非公式 接觸을 통해 서 함	市場 그리고 生産者 와 그 組織과 非公 式 接觸을 통해서 함
管理上의 自由範圍	中 間	低 位	中 間	高 位
企業의 安定	낮 음	中 間	證據가 不充分 함	높 음
企業의 國家에 대한 關係	豫算關係	指 示	國家에 租稅納付	國家에 租稅納付
企業, 小賣業등에서의 一部 個人企業의 許容	낮 음	中 間	中間보다 높음	中間보다 높음

	動員化體制	中央集權化體制	分權化體制	市場社會主義體制
巨視經濟政策	受動的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豫算 - 積極的 信用 - 受動的	특히 金融制度를 통해 積極的	특히 金融制度를 통해 積極的
革新에 대한 體制的 效果	外國技術의 補給 때때로 活潑한 아이디어의 採用	外國技術의 補給과 有益한 部門에서의 革新	證據의 不充分	證據의 不充分
勞動者의 組織	勞動勞의 軍隊化 및 競爭心 誘發	스타하노프運動 ⁵⁾ (Stakhanovism)	證據의 不充分	證據의 不充分
防護・建設등에서의 自發的 勞動에 依存 (임금을 支拂하지 않음)	자주있음	드 ㅁ	없 ㅁ	없 ㅁ

資料 :

註 5) 工場에서 能率을 올린 勞動者에게 賞金을 주어 生産增大를 꾀하는 것.

第 3 節 빌진스키의 分類

다음 빌진스키⁶⁾는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運用과 이에 따른 資源 配分 方法에 따라 다음 4 가지 基本모델로 類型化 하였다.

① 官僚的 中央集權化 모델 (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 이 모델에서는 모든 經濟的 節次가 計劃과 統制 즉 中央計劃委員會가 피라미드의 頂點을 이루는 階層的 組織에 의해 支配된다. 따라서 實際 經濟活動單位에서는, 모든 經濟的 計算이 國家計劃을 樹立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獨自的인 意思決定權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經濟活動單位는 단지 指示的 目標와 其他 直接的인 수많은 計劃指標에 대한 義務로만 묶여있게 된다. 그리고 經濟計算은 物量單位로만 하며 資源配分の 決定은 價格이 아니라 物資바란스에 基礎한다.

이 모델의 長點은 黨이나 計劃의 國內的 妥當性에 의해 假定된 우선순위에 따라 生産構造를 保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制度는 資源의 浪費와 經濟運用의 伸縮性을 갖지 못하고 있는 缺點이 있다.

② 中央集權的 計量計劃 모델 (The Planometric Centralist Model)

上記한 物資바란스 方法을 中央計劃當局의 水準에서 實行하는 數理的 方法으로 代替한 것이다. 또한 價格도 이들 數理模型의 聯습으로 設定된다. 이 모델에서는 生産單位에 生産決定과 價格決定에 대한 自由裁量權을 상당히 賦與한다.

註 6) J. Wilczynski, The Economic of Socialism, pp.3-6.

따라서 理論的으로는 이 모델이 資源의 最適配分을 保障할 수 있지만 現實性의 問題가 있다.

③ 部分的 分權化 모델 (The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中央計劃과 行政機構들이 存續하고 있지만 어느정도의 責任과 權限이 工業協會나 地域産業組織 또는 各企業에 委任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中央計劃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그리고 直接的인 下部組織에 대한 指標의 數가 줄어든다. 그리고 收益性이 企業의 成果에 대한 基本的인 判斷 指標가 된다. 價格은 여전히 中央에서 計劃하지만 政府가 企業에 提供하던 補助金을 줄이고 生産費에 보다 接近한 價格에 準하여 策定된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一定한 限界內에서 企業의 自律權과 消費者主權을 提供하고 있다. 그러나 價格決定 過程에 人爲的인 要素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資源의 配分이 稀少性이나 選好라는 가장 效率的인 基準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補助的市場 모델 (The Supplemented Market Model)

이 모델에서는 經濟的 節次가 市場메카니즘에 의해 實行된다. 따라서 年間計劃과 直接的 目標가 市場메카니즘으로 代替된다. 대체로 價格이 需要와 供給을 反映하여 市場에서 決定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決定된 價格은 長期的인 巨視社會的 損益을 고려하여 當局에 의해 修正된다. 價格은 企業이 그들의 利益을 極大化하고 消費者의 選好를 最大로 反映하게 하는 機能을 한다. 大幅的으로 줄어든 計劃樹立部署의 役割은 체코의 著名한 經濟學者인 Ota Šik 가 指向計劃 (Orientation Planning) 이라고 名命하였듯이 어떤 基本的인 比重 (消費와 投資 또는 生産 各分野間의 比重등) 을

決定하거나 必要할 경우, 主要한 開發計劃을 提案하는 것에 限定된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市場을 통한 財政・金融手段에 依
存한다. 이 모델은 官僚制度의 硬直性和 浪費가 除去되고 資源의
効率的 利用을 誘導하는 健全한 價格決定制度의 長點이 있다.

빌진스키는 東歐 9 個國중 두 國家만이 이들 4 개 모델分類에 正
確히 該當된다고 하였다. 즉 알바니아가 官僚的 中央集權的 모델
에 該當되고 유고가 補助的市場 모델에 該當된다고 하였다. 나머
지 國家들은 거의 1950 年代末까지 모델①인 官僚的 中央集權的 모
델에 該當됐다가 그 以後부터 몇 가지 中央集權的 制度의 要素들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점차 部分的 分權化 모델로 移行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중 체코와 헝가리는 改革의 幅이 擴大되어 補助的 市
場모델의 몇 가지 特徵을 지니고 있고 유고가 典型的으로 이 모델
에 該當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東獨,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 폴
랜드를 部分的 分權化 모델에 該當하는 것으로 分類하였다.

第 4 節 鈴木輝二, 渡邊博二 分類

한편 鈴木輝二・渡邊博二⁷⁾는 社會主義 經濟改革을 中心으로 한 經
濟體制의 類型化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뿐만이 아니라 黨機構, 政治體
制, 社會意識등 非經濟的 要因의 作用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綜
合的인 分析이 없이는 理解가 不可能하다는 立場에서 다음과 같이
4 가지 型으로 分類하였다.

註 7) 鈴木輝二・渡邊博二, ソ連・東歐諸國の經濟管理制度(序說・本書의
課題), (社團法人 ソ連東歐貿易會, 1979), pp.1~9

第1型：1950年代의 소련, 東歐 各國에서 特徵적인 中央集權型的 經濟管理에 의거한 것.

第2型：中央經濟計劃이 커다란 役割을 하지만, 部分的으로 經濟組織의 自律化를 導入한 것. 이는 1956~1958年의 經濟改革後의 폴란드, 1965~1967年 經濟改革後의 소련, 그리고 루마니아를 除外한 他東歐諸國들도 1960年代에 이 型으로 移行했다고 分類하였다.

第3型：中央經濟計劃은 엄연히 機能하고 있지만 經濟組織單位의 自律化를 大規模로 導入한 것. 이는 주로 1968年 以後의 헝가리가 該當된다고 分類하였다.

第4型：經濟組織單位의 自律化를 最大化한 市場型이라 불리는 것. 이는 1950年代 以後의 유고를 이 型에 該當된다고 分類하였다.

그런데 鈴木輝二와 渡邊博二는 이 三가지 型의 經濟管理制度를 보다 詳細히 把握하기 爲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觀點을 設定하였다.

즉 第1의 觀點은 中央經濟計劃의 役割이다. 中央經濟計劃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經濟에서는 分離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第2의 觀點은 主要한 經濟行政機關의 構造에 關한 것이다. 經濟管理制度의 相違함은 具體적으로 바로 이 構造의 相違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3의 觀點은 經濟的 用具手段이다. 여기서 말하는 經濟的 用具手段이라는 것은 價格, 利潤, 投資資金등의 經濟「카테고리」를 의미한다.

이에 그들은 이러한 3가지 觀點을 基準으로 하여 즉 ①中央經濟計劃 ②主要經濟 行政機關의 構造 ③經濟的 用具手段을 中心으로 하여 各己 4가지 類型의 特徵을 區分하였다.

中央經濟計劃을 基準으로 한 類型別 特徵：中央經濟計劃 특히 計

劃의 義務的 指標의 性格과 範圍에 따라 4가지 經濟管理體制間의 相異點이 分明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第1型 : 이 類型에 있어서는 中央經濟計劃은 매우 具體적으로 作成되어 있으며, 現物表示로서 生產品目, 生産量, 投資量을 指示하고 있다. 中央經濟計劃의 諸指標는 上部로부터 下部로 直接 命令하며, 生産은 이 下達된 命令의 遂行으로서 行해진다.

第2型 : 이 型에서는 中央經濟計劃은 過度한 具體化를 排除하여 下部組織에 具體적인 生産課題는 設定하지 않는다. 生產品目的 義務的 指標는 重要な 品目に 限定되어 있다. 其外 大部分의 計劃指標는 現物表示가 아닌 價格表示로 作成되고 있다.

第3型 : 이 型에서는 中央經濟計劃은 주로 戰略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經濟計劃은 특히 새로운 產業部門, 新市場, 產業構造등의 變數에 대해서만 作成된다. 計劃의 義務的 指標의 數가 大幅 줄어들고, 義務的 指標도 國民經濟 全般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한 投資프로젝트, 新製品 開發에 관한 것. 또는 投資量의 上限, 賃金펀드에 관한 것에 限定되고 있다.

第4型 : 이 型에서는 中央經濟計劃은 거의 役割을 하지 않는다. 동시에 義務的 指標도 存在하지 않는다.

主要經濟行政機關의 構造를 基準으로 한 類型別 特徵 :

여기서 말하는 構造는 經濟行政 諸機關의 役割과 機關間의 關係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主要經濟行政機關은 巨視的 政策을 決定하는 閣僚會議, 計劃委員會로 代表되는 中央計劃當局, 各 產業部門을 監督하는 產業部門省·廳(例를들면 重工業省, 輕工業省, 化學省등), 經濟運營에 提携하는 經濟機能省·廳(例를들면 財務省, 勞動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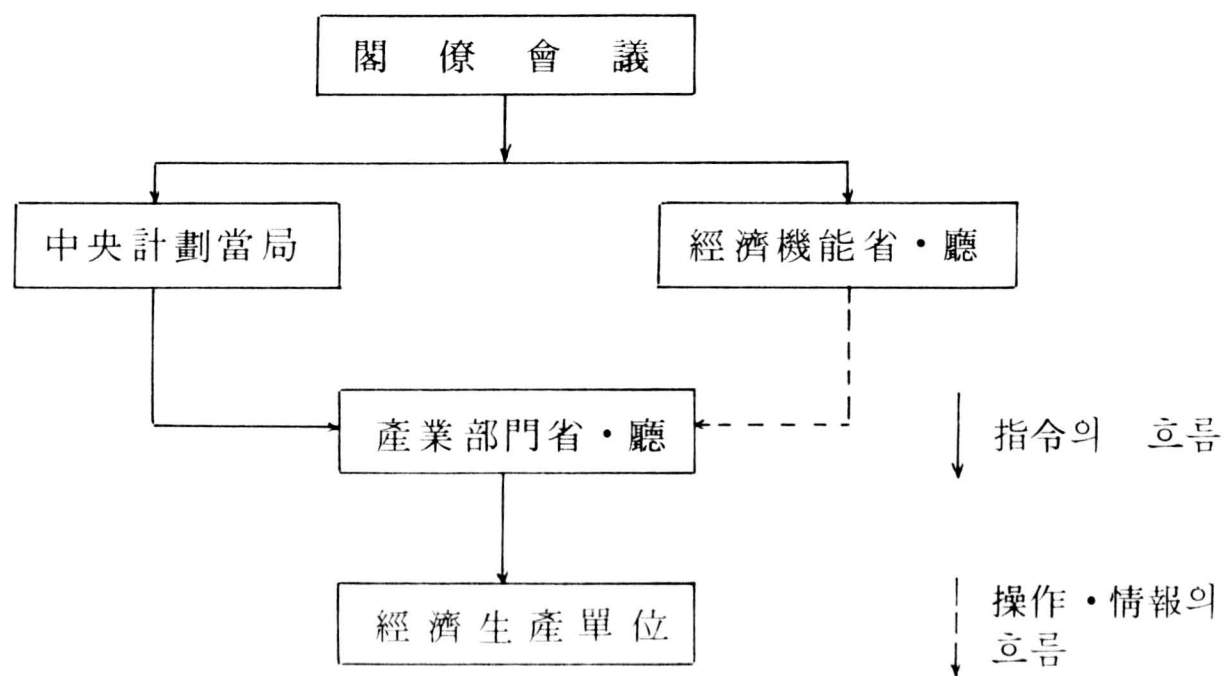
金省, 價格局 등)이다. 여기서 管理되는 側인 企業, 企業合同, 콤비나트 등의 經濟生産單位 를 합하여, 各已 4 가지 型別 關係 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 1 型 : 이 型에서는 閣僚會議에서 決定한 政策決定은 中央計劃當局 및 經濟機能省·廳에 指令·傳達된다. 中央計劃當局은 이 指令에 의거하여 細目에 걸친 計劃을 作成하여 이 計劃을 指令으로 하여 産業部門省·廳에 傳達한다. 한편 經濟機能省·廳은 政策決定의 指令을 받아, 資金面, 賃金, 價格 등의 經濟的 手段用具를 整備하여, 産業部門省廳의 經濟生産單位에의 指令作成에 影響을 미친다. 産業部門省·廳은 計劃과 經濟的 生産用具를 고려하여, 經濟生産單位의 生産指令을 作成하여 經濟生産單位에 傳達한다.

第 2 型 : 이 型에서는 閣僚會議에서 決定된 政策決定은 中央計劃當局, 經濟機能省·廳, 특히 産業部門省·廳에 指令·傳達한다. 中央計劃當局

經濟管理機關의 構造

(第 1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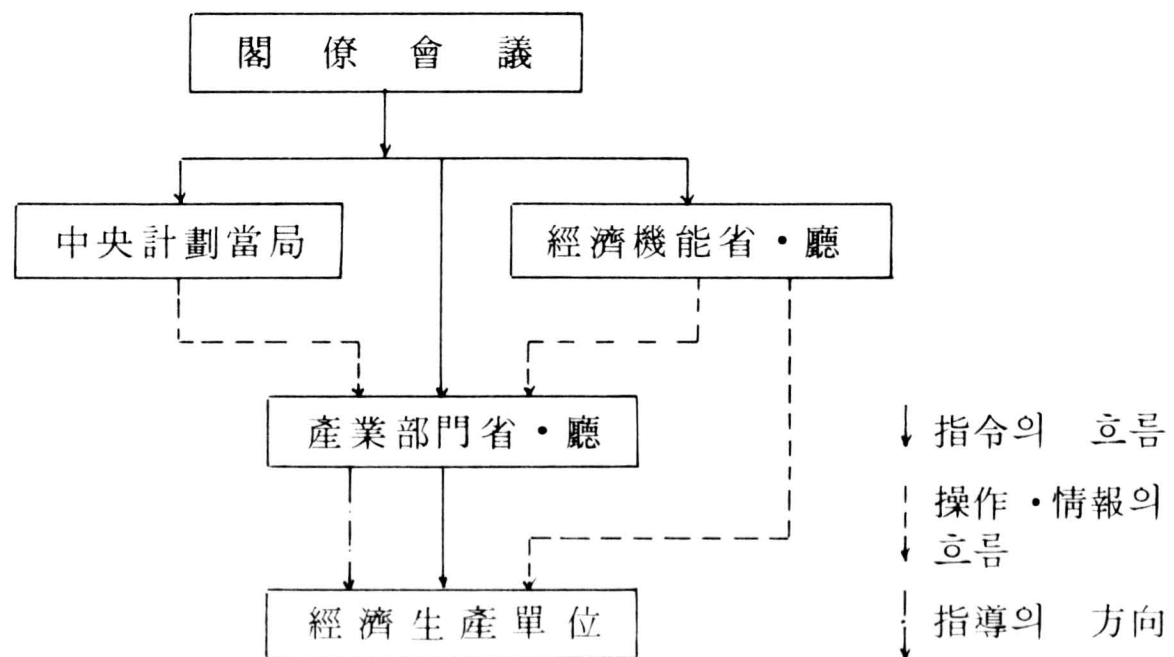


局에서 作成되는 計劃은 오히려 指令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지 않고 産業部門省 또는 經濟生産單位가 作成하는 計劃을 위한 主要한 情報가 된다. 閣僚會議의 指令을 받은 産業部門省·廳은 各己 産業部門의 生産計劃에 責任을 가지고 經濟生産單位를 指導한다. 經濟生産單位의 一部에는 生産計劃의 自由裁量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經濟機能省·廳이 整備하는 經濟的 用具手段을 利用하여 그 計劃을 遂行한다.

第3型 : 이 型에서는 閣僚會議에서 決定한 政策決定은 우선 中央計劃當局, 經濟機能省·廳, 産業部門省·廳에 傳達된다. 그런데 이들 機關에서부터 經濟生産單位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은 第1型和 第2型의 그것과는 根本的으로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閣僚會議의 政策決定에 의거하여 中央計劃當局과 經濟機能省·廳은 各己 役割에 따라 經濟生産單位를 誘導한다. 이 型에 있어서 産業部門省·廳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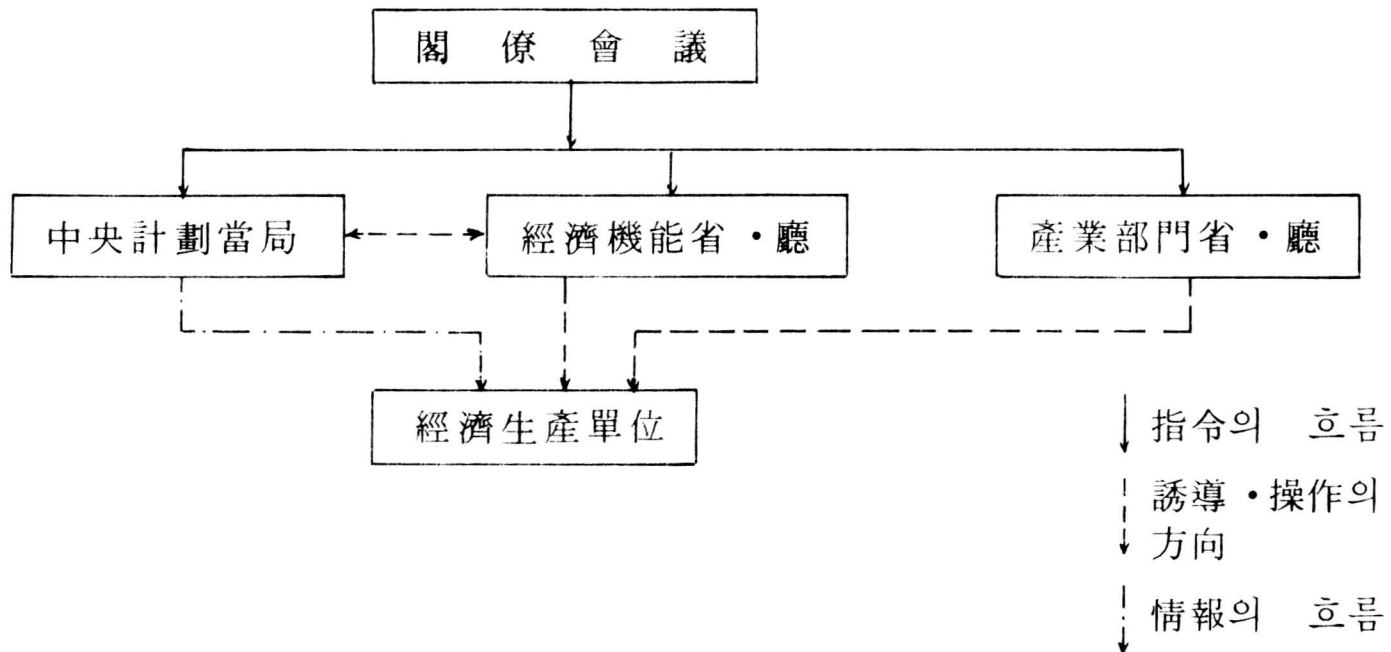
經濟管理機關의 構造

(第2型)



經濟管理機關의 構造

(第 3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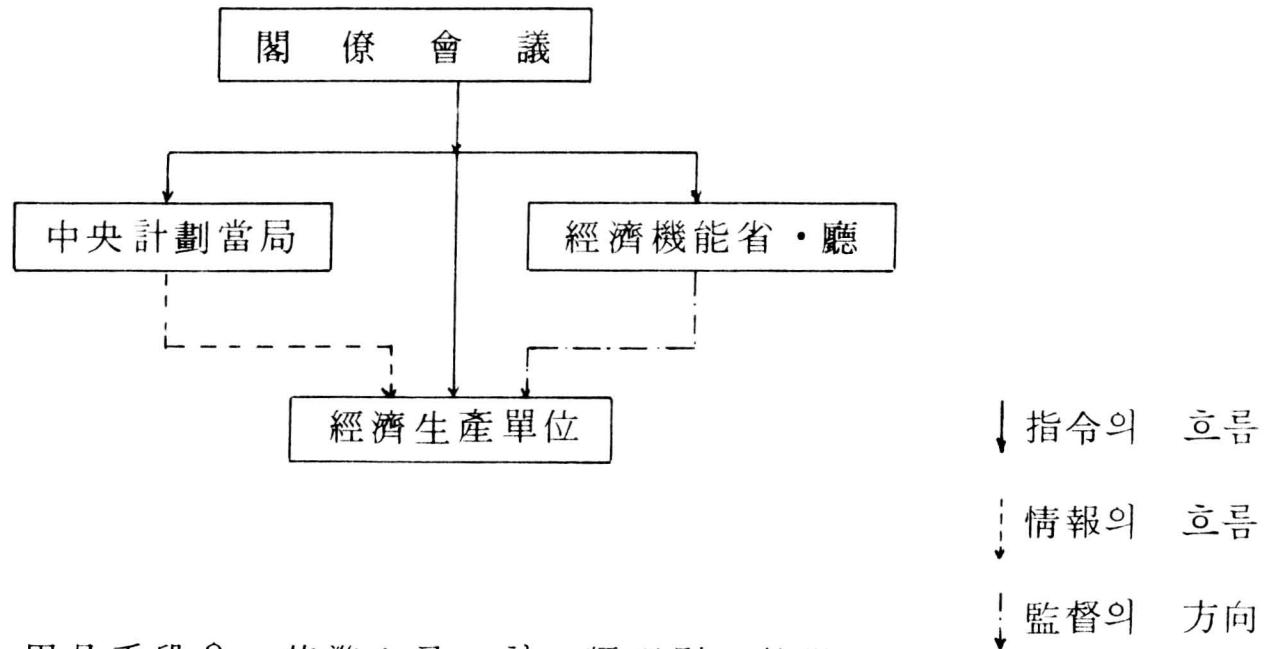
役割은 第 1 型, 第 2 型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어 주로 部門의 長期的 構造政策에 限定되고 있다.

지금까지 본 第 1, 2, 3 型에서의 指令, 操作, 指導 특히 誘導의 흐름에는 반드시 法的効力を 隨伴하는 監督 또는 監察이 隨伴된다. 上位의 機關이 下位의 機關에 대하여 監督 또는 監察機能을 하고 있다.

第 4 型 : 이 型에서는 閣僚會議에서 決定한 政策決定을 中央計劃當局과 經濟機能省·廳에 傳達한다. 中央計劃當局이 이 決定을 받아 計劃을 作成하지만, 이 計劃은 生産單位에서 情報로서의 意味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經濟機能省·廳의 經濟生産單位에 대한 役割은 財政面에서의 監督이고 産業部門省·廳의 經濟管理上의 役割은 크게 縮小되어 있다.

經濟管理機關의 構造

(第 4 型)



經濟的 用具手段을 基準으로 한 類型別 特徵 :

여기서 經濟的 用具手段이란 앞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價格, 利潤, 企業에서의 投資方法, 賃金등을 말한다. 이들 經濟的 用具手段이 4 個型的 經濟管理制度 各各에 어떠한 役割, 性格, 意義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一覽表는 다음과 같다. <表 4 參照>

지금까지 본 共產圈國家에서의 現實적이고 具體적인 經濟管理制度 - 勿論 過去의 것도 包含하여 - 의 어느것을 보더라도 抽象적으로 記述된 上記 4개의 經濟管理制度型중 어느것에도 嚴格히 合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近似的으로 分類할 수 있다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鈴木輝二와 渡邊博史는 다음과 같이 國家別로 分類하고 있다.

즉 모든 소련·東歐諸國의 經濟管理制度가 1950年代에는 第1型에 該當되다가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루마니아를 除外한 모든 國家들이 第2型으로 移行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東獨과 체코는 한번

< 表 4 >

經濟的用具手段과 經濟管理制度와의 聯關

經濟的用具手段	第 1 型	第 2 型	第 3 型	第 4 型
價格： 價格의 役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受動的 • 費用計算에 使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部分的인 價格機能의 增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産者에 보다 커다란 役割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需給을 反映하는 市場價格
價格의 性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固定價格 • 二重價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彈力的인 價格運營의 導入 • 部分的 二重價格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産의 變化에 對應하는 價格 • 거의 全面的인 二重價格의 廢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第 3 型에 近似
價格의 決定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한 經濟行政機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的인 生産物의 價格은 主要한 經濟行政機關에 의해 決定됨 • 他價格은 經濟組織에 의해 決定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組織은 規則에 따라 價格設定의 權限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第 3 型에 近似 하지만 制約은 적음
價格의 監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必要치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高監督機關이 一部の 價格에 대해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價格에의 監督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惡用된 경우 國家機關・社會機關이 介入

經濟的用具手段	第 1 型	第 2 型	第 3 型	第 4 型
利潤： 利潤의 役割	• 至極히 적음	• 增加함	• 至極히 큼	• 至極히 크며 企業所得의 一部로 됨
利潤으로부터의 刺戟 Fund 形成	• 至極히 적음 (例를들면 賃金펀드의 3~4%)	• 增大함. 賃金 및 Infrastructure Fund 의 8.5%정도	• 利潤에 의한 賃金の 增大 또는 프리미아가 引出됨	• 企業所得에서 賃금이 支拂됨. 프리미아가 形成됨.
利潤으로부터의 成長 Fund 의 形成	• 至極히 적음	• 크며, 企業의 成長 Fund 는 利潤과 減價償却으로 形成됨	• 利潤이 基本的인 源泉으로 됨	• 第 3 의 型과 거의 同一함
企業의 投資方法： 特徵과 源泉	• 全投資에 대해서 中央集權化된 財政方法, 企業投資의 源泉은 國家豫算	• 企業의 投資는 利潤과 減價償却에서 조달하는 制約이 있음	• 企業의 投資는 利潤과 減價償却과 銀行 貸出로 함	• 第 3 의 型과 거의 同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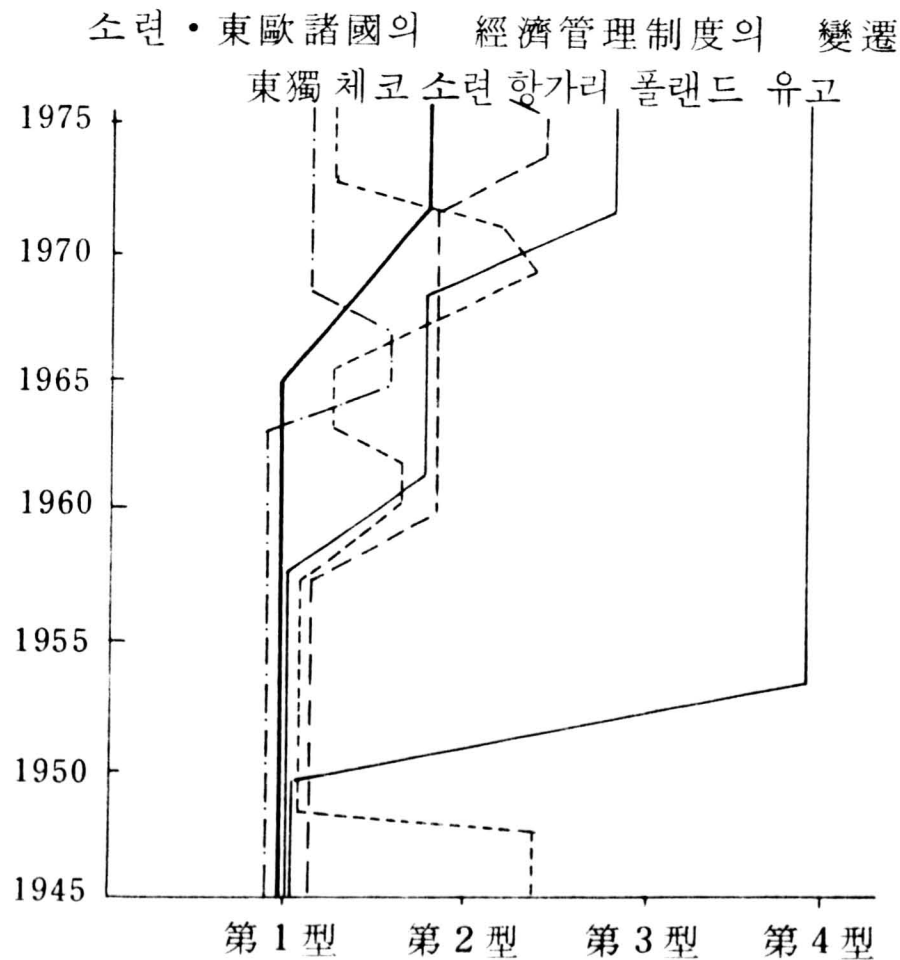
經濟的用具手段	第 1 型	第 2 型	第 3 型	第 4 型
減價償却 Fund의 利用	• 減價償却의 거의 40%는 資本의 補填分으로서 計劃에 包含되어 있음.	• 거의 大部分을 經濟組織이 處理하지만, 나머지는 經濟行政機關이 處理함.	• 60%가 企業으로 40%가 國庫로 감.	• 모든 것을 企業이 處理함.
生産手段에의 課稅率	• 없음	• 生産手段價格額의 5%가 計算되어 利潤에서 國庫로 支拂됨	• 生産手段의 生産 Fund의 5%, 投資 크레디트의 8%	
賃金 : 賃金 Fund 形成을 위한 指標	• 總生産高	• 販賣生産高	• 經濟効率과 關係있는 指標로서 測定한 生産高	• 企業所得
賃金の 形成과 變動	• 賃金の 基本給分은 固定되어 있고 變動分은 計劃의 遂行度에 따라서 變動함.	• 賃金の 基本給分은 固定되어 있지만 變動分은 質量的 經濟効率에 따라서 變動한다.	• 賃金の 基本給分の 變動도 可能하며 經濟効率에 크게 關係 있음.	• 企業所得은 勞働者 評議會에 의해 賃金 Fund와 成長 Fund로 分割됨.

은 第2型에 크게 接近하다가 다시 第1型으로 復歸하여 현재는 第1型和 第2型的 中間에 있는 것으로 分類하고 있다. 이들 두 國家가 第1型으로 復歸한 要目を 鈴木輝二와 渡邊博史는 체코의 경우는 프라하봄 以後의 政治·經濟的 危機의 反動으로 보고 東獨의 경우는 具體적으로 作成되는 指示的 中央經濟計劃을 工業生産에 復活시키고 있으면서 第2型的 特徵인 利潤에 의한 刺戟要因은 採擇하고 있지만 第1型을 높게 評價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第3型的 典型的인 國家로는 1968年 以後의 헝가리를 들고 있고, 폴란드에서도 1973~1975年의 大經濟組織을 導入하면서 部分的으로 第3型을 試圖하였지만 현재는 第2型으로 復歸하는 傾向이 있다고 分類하고 있다.

第3型的 國家로는 유고를 들고 있다.

以上 소련·東歐諸國의 經濟管理制度的 變遷을 圖試한 것이 다음 圖이다.



第 6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成果

第 1 節 經濟改革類型과 經濟實績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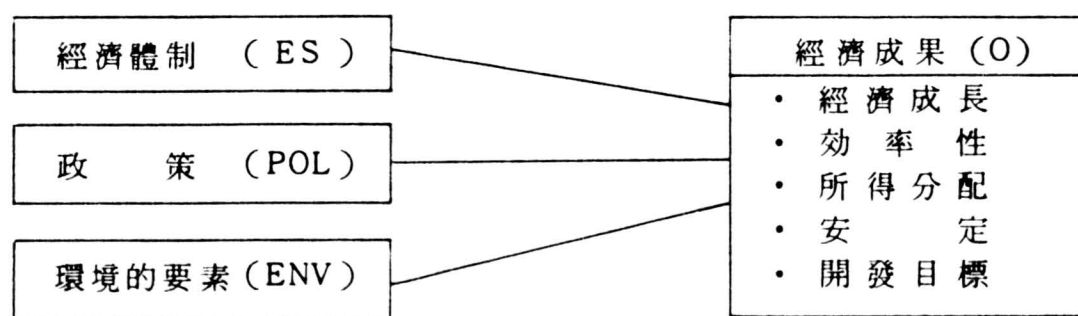
經濟的 與件 즉 賦存資源, 經濟政策의 力點部門등의 差異뿐만 아
니라 經濟外的要因이 相異한 國家들의 經濟成果를 比較 評價하는 것
은 거의 不可能하다.

그러나 모든 與件이 一定하다고 보고 經濟改革과 關聯된 經濟
體制를 中心으로 생각할 때 經濟實績 (outcome : O)은 여러가지
與件的要素 (A Variety of Environmental Factors : ENV) 즉 天然
資源 및 人口資本의 賦存 및 開發水準등과, 經濟政策 (Policies
Pursued by The Economic System : POL) 그리고 經濟改革을 통
한 經濟體制 (The Economic Systems : ES)의 函數라고 假定할
수 있다.¹⁾

$$O = f (ES , ENV , POL)$$

이 方程式은 經濟體制가, 모든 與件이 一定할 때, 經濟實績에 미
치는 影響을 決定하는 方法論的 問題를 제시하고 있다.

經濟成果에 미치는 要素들



註 1)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op.cit., pp.23-24.

그런데 環境的要素 (ENV)와 經濟政策의 價値는 國家마다 다르고 그리고 經濟改革의 內容도 國家마다 다르기 때문에 經濟體制의 經濟成果에 대한 影響을 分析할 수가 없다.

確證되어 왔다.²⁾ 그런데 이는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의 結果이나 또는 다른 要素 즉 ENV나 POL의 結果나 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소련의 長期經濟成長率이 美國이나 西歐를 능가해 왔다.³⁾

이 경우에도 이것이 經濟體制의 結果인가 또는 다른 要素의 結果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問題를 다룬 두가지 研究에서 스스로 이 問題에 대해 解答을 提示하고 있다. 그 첫째는 한결같이 모든 經濟體制面에서만 經濟成長을 比較하거나 또는 經濟體制를 除外하고 한결같이 經濟的 側面에서만 比較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본 方程式에서 ENV와 POL이 같은 경우에만 實績을 比較하는 것에 該當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經濟成果의 差異를 經濟改革의 內容差異에서 오는 經濟體制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分析의 가장 最近의 例는, 不完全하기는 하지만, 分斷된 東·西獨과 南北韓比較 研究가 있다.⁴⁾

註 2) Abram Bergson, Planning and Productivity under Soviet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8).

3)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Ch.p.

4) (1) Joseph Chung, "The Economies of North and South Korea"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tlantic City, N.J., Sept. 1976).

(2) Paul Gregory and Gert Leptin, "Similiar Societies under Differing Economic Systems: The Area of the Two Germanys, Soviet Studies, 24(Oct. 1977), pp.519-542.

그러나 이 경우에는 同一한 ENV와 POL을 前提로 하지 않는 한 그 比較에는 無理가 있다.

第2節 中共의 經濟改革 成果

이에 여기서는 同一한 ENV 下에서 POL과 ES가 크게 變化된 中共의 경우를 代表的인 事例로 하여 經濟改革의 成果를 把握하고자 한다.⁵⁾

經濟成長：經濟改革 成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指標가 經濟成長率이다. 經濟成長은 量的인 生産量의 增加뿐만이 아니라 1人當 生産量의 增加를 의미하기 때문에 國民의 厚生도 그만큼 增加되었음을 나타내는 指標이다.

中共의 經濟改革의 成果는 우선 中共의 經濟成長率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表 5>에서 보듯이 1979 ~ 1984年間 社會總生産, 農工業總生産, 社會純生産이 1953 ~ 1978년까지의 26年間 보다도 훨씬 빠른 速度로 成長하고 있다.

한편 長期間에 걸쳐 經濟의 餘他部門을 지연시키고 重工業만 發展시키는데 力點을 두었던 經濟政策을 中斷하고 農業과 輕工業의 成長을 中心으로 轉換하고 集團經濟에 基盤을 둔 契約體系 導入과 農村部門의 經濟改革 結果로 農·輕工業의 成長率이 重工業 成長率을 改革以前 보다 勿警 3배나 上廻하고 있다.

이 결과 輕工業과 重工業의 生産比重의 隔差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註 5) Li Cheng Rui, Economic Reform Brings Better Life, (Beijing Review) 1985, 7,22, Vol.28, No.29).

< 表 5 >

中共의 社會總生産과 國民所得

單位：10 億원

	1978 年	1984 年	연 평균 증가율	
			1979 ~ 1984	1953 ~ 1978
사회 총생산	684.6	1,283.5	9.0 %	7.9 %
농·공업총생산	563.4	1,079.6	9.0 %	8.2 %
사회순생산 (국민소득)	301.0	548.5	8.1 %	6.0 %

效率性：經濟改革의 效果를 測定하는 두번째 指標는 效率性 (Efficiency)이다. 效率性이란 概念은 그 經濟體制가 可用資源 (知識包含)을 特定時點 (靜態的 效率性) 또는 長期間 (動態的 效率性)에 걸쳐 얼마나 效率的으로 利用하느냐 하는 指標이다.

< 表 6 >

中共의 産業部門別 成長率

單位：億원

	1978	1984	年平均成長率	
			1979 ~ 1984	1953 ~ 1978
農業	156.7	375.4	9.4 %	3.2 %
輕工業	175.3	333.5	11.7 %	9.1 %
重工業	231.4	370.7	6.6 %	13.6 %

< 表 7 >

部門別 生産比重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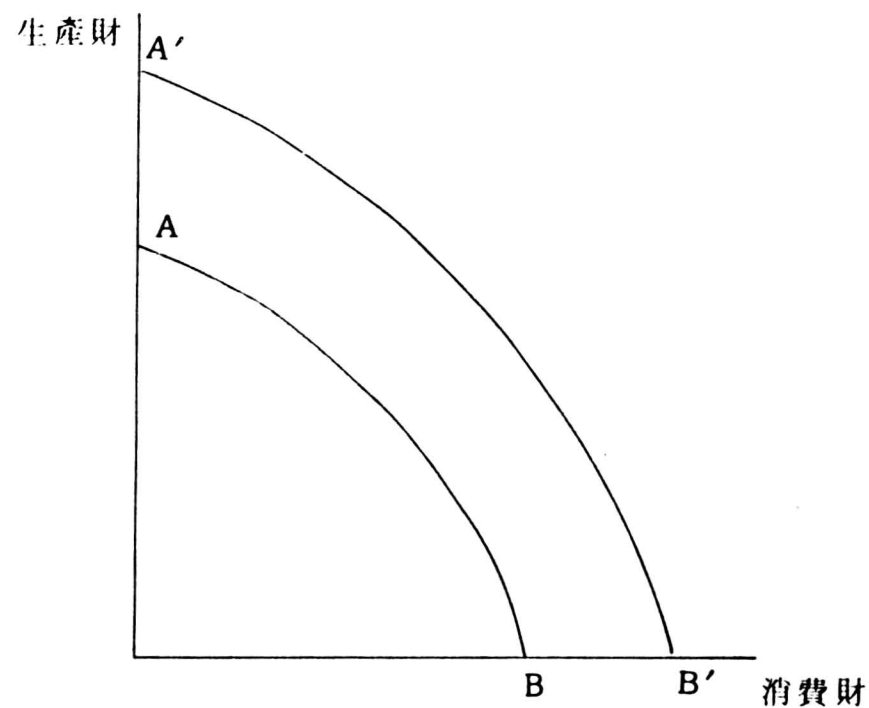
		1978	1981	1984
農工業總生産	農業	27.8	32.5	34.8
	工業	72.2	67.5	65.2
工業總生産	輕工業	43.1	51.5	47.4
	重工業	56.9	48.5	52.6

이는 生産可能曲線 (Production Possibility Curve)으로 說明 될 수 있는데, 中共이 經濟改革 以後 農業과 輕工業에 力點을 둔 결과, 重工業 成長率은 1953 ~ 1978 年間的 年平均 13.6 %에서 1979 ~ 1984 年間에는 6.6 %로 크게 下落하였지만 重工業 生産 絕對額은 1978 年の 2,314 億元에서 1984 年 3,707 億元으로 增加하였다.

즉 中共은 經濟改革後 農業, 輕工業은 勿論이고 重工業 絕對生産 量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同一한 ENV 下에서 經濟改革에 의해 中共의 生産可 能曲線이 圖表의 AB에서 A'B'로 移動되었음을 의미한다.

中共의 生産可能曲線



所得分配 : 經濟體制가 얼마나 所得配分の 平準化에 作用하였는가 하는 것은 經濟改革의 成果를 測定하는 3 번째 指標가 된다.

中共은 經濟改革 以後 國家統計局이 農村地域의 所得과 消費에 대 해 82 個 都市 12,050 家口와 農村 600 個 都市 31,435 家口에 調 査한 結果를 보면 <表 8 >에서 보는 바와같이 勞動者 家計나 農

民家計나 모두 絶對所得이 大幅的으로 늘어났다.

勞働者・農民의 家計所得과 消費

家族 1 人 當 年 平 均 值	1978	1984	1979 ~ 1984 年間 年 平 均 增 加 率	
勞働者家計	所得	316.0 元	607.6 元	8.2 %
	消費	311.2 元	559.4 元	7.0 %
農民家計	所得	133.6 元	355.3 元	15.0 %
	消費	116.1 元	273.8 元	13.2 %

또한 表 < 9 > 와 < 10 > 에서 보듯이 高所得農民 및 勞働者 家口的 比率이 늘어나는 反面, 低所得 家口的 比率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더 많은 農民과 勞働者家口가 中上位層으로 移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로렌즈曲線 (Lorenz Curve) 과 지니係數 (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에 의해 설명하면 1984年 農村家口的 지니係數가 0.264 로 1978年度 0.237 보다 약간 높아졌다. 그리고 勞働者 家口的 지니係數는 1978年의 0.185 에서 1984년에는 0.168 로 낮아졌는데 이는 最近에 低所得 勞働者들에 대한 賃金引上이 反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中共은 經濟改革 以後 農村家口나 勞働者 家口的 所得이 平準化 바탕위에서 增大되었다. 단, 農村部門에서 農家の 지니係數가 1978年의 0.237 에 비해 1984년에 0.264 로 0.027 % 「포인트」가 높아져 약간의 不平等 現象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世界 다른 國家의 農村에 비해서는 훨씬 平等한 所得分配이다.

<表 9 >

農家所得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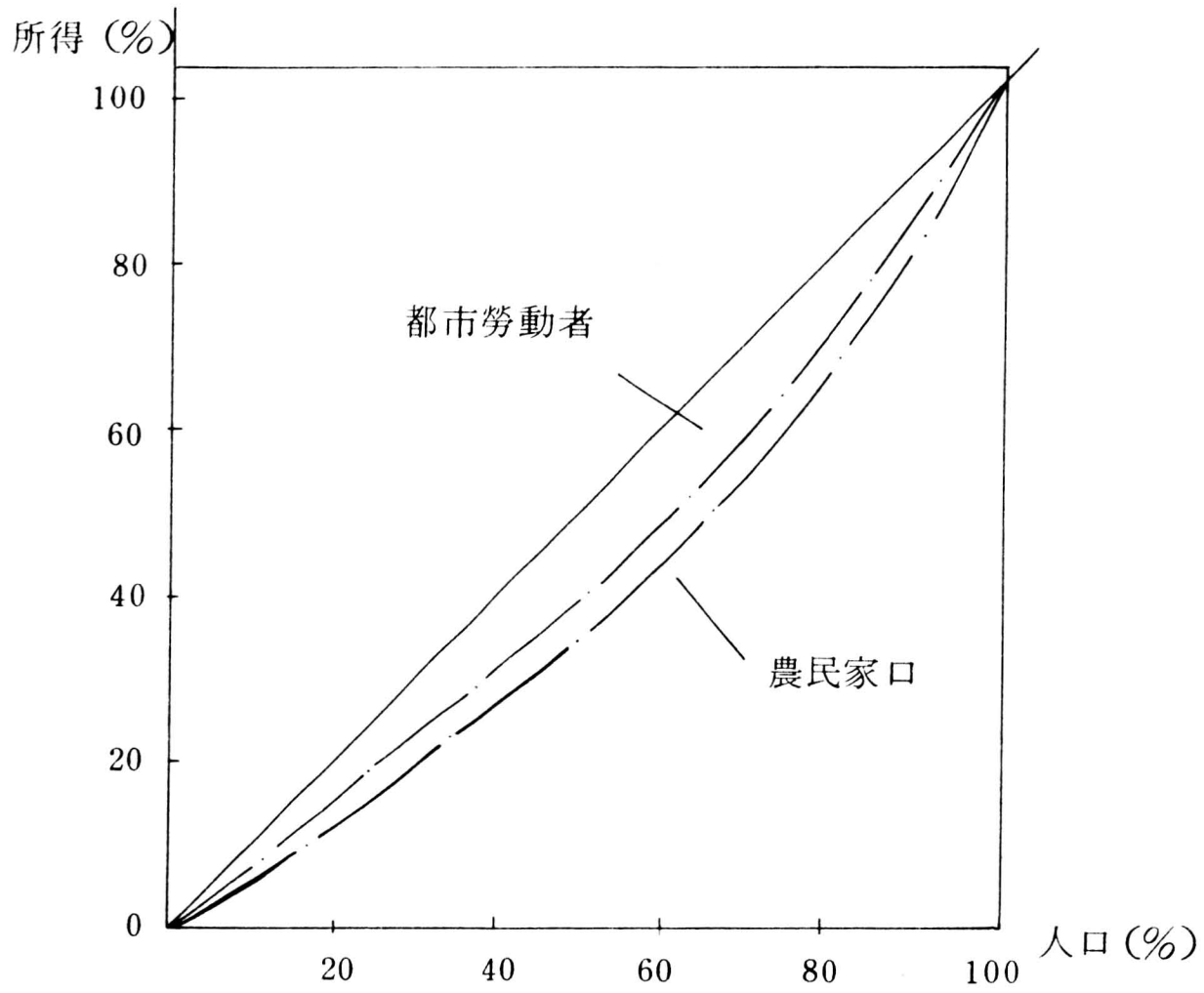
가족 1 명의 연간 소득	1978 년		1984 년	
	인구비율	소득비율	인구비율	소득비율
총 계	100 %	100 %	100 %	100 %
60 원 이하	8.69 %	3.29 %	} 0.89 %	0.19 %
80 원 이하	26.68 %	16.58 %		
100 원 이하	33.01 %	31.50 %	4.19 %	1.53 %
150 원 이하	17.40 %	22.40 %	10.14 %	5.04 %
200 원 이하	12.62 %	22.36 %	30.68 %	21.58 %
300 원 이하	} 1.6 %	} 3.87 %	24.73 %	23.98 %
400 원 이하			13.60 %	16.94 %
500 원 이하			12.58 %	21.38 %
800 원 이하			1.99 %	4.96 %
1,000 원 이상			1.20 %	4.40 %

<表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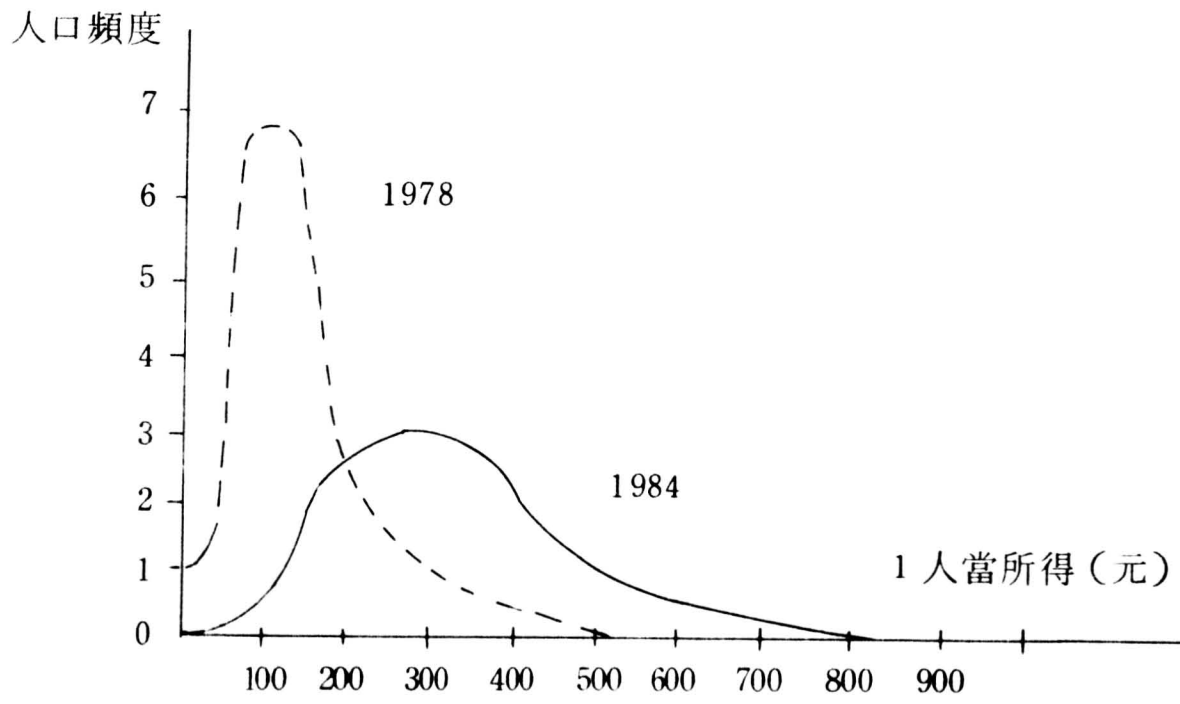
勞働者 및 幹部家庭의 所得分析

가족 1 명의 연간 소득	1978 년		1984 년	
	인구비율	소득비율	인구비율	소득비율
총 계	100 %	100 %	100 %	100 %
120 원 이하	1.76 %	0.70 %	} 2.21 %	} 0.98 %
180 원 이하	42.67 %	30.95 %		
240 원 이하	20.60 %	17.96 %		
300 원 이하	19.99 %	25.63 %	4.09 %	2.27 %
360 원 이하	8.50 %	12.28 %	8.70 %	5.68 %
420 원 이하	2.91 %	5.05 %	12.79 %	9.56 %
480 원 이하	2.76 %	5.38 %	28.21 %	25.29 %
600 원 이하	} 0.81 %	} 2.05 %	21.66 %	23.53 %
720 원 이하			11.58 %	14.87 %
840 원 이하			5.76 %	8.54 %
960 원 이상			5.00 %	9.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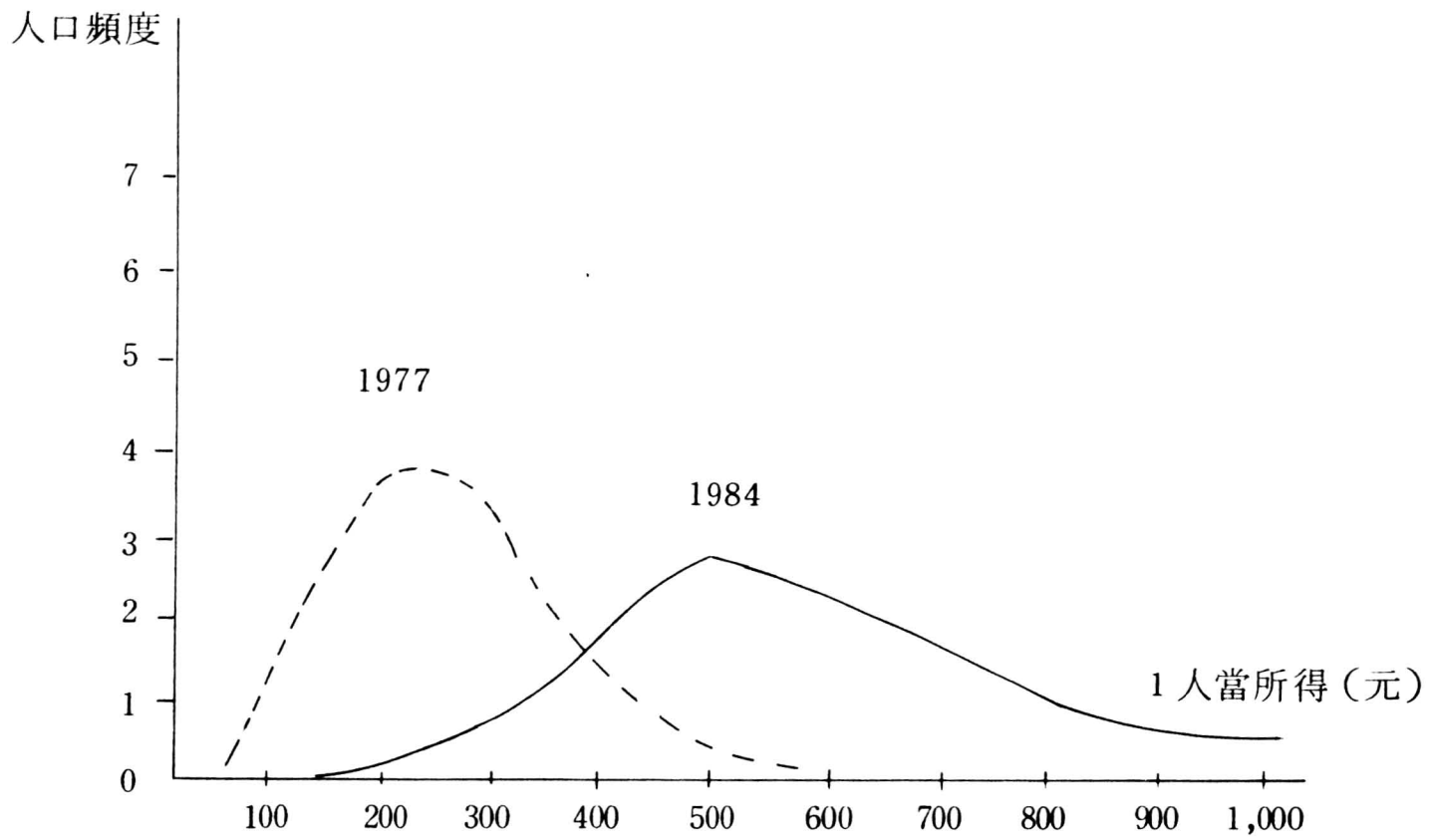
家計所得分布에 대한 로렌즈曲線



農民所得의 分布



勞働者所得의 分布



이처럼 中共은 經濟改革後 平準化 바탕 위에서는 1人當 所得增大는 國民의 貯蓄率을 提高시키면서 또한편으로는 耐久消費財의 需要를 大幅 增加시키고 있다.

<表 11 > 저 축 증 가 율

단위 : 10 억 원

	1978 年	1984 年	연 평균 증가율	
			1979 ~ 1984 年	1953 ~ 1978 年
은행 저축 총액	21.06	121.47	33.9 %	13.1 %
도시민의 은행저축총액	15.49	77.66	30.8 %	11.8 %
농민의 은행저축총액	5.57	43.81	41 %	28.8 %

< 表 12 >

農村家庭의 耐久財 保有量

區 分	100 가구당 내구재 수량		
	1978 년 말	1980 년 말	1984 년 말
자 전 거	30.73 대	36.87 대	74.48 대
손 목 시 계	27.42 개	37.58 개	109.44 개
재 봉 틀	19.80 대	23.31 대	42.57 대
라 디 오	17.44 대	33.54 대	61.13 대
T V	-	0.39 대	7.24 대

< 表 13 >

勞動者家庭의 耐久財 保有量

區 分	100 가구당 내구재 수량	
	1980 년 말	1984 년 말
자 전 거	126.77 대	162.67 대
손 목 시 계	223.89 개	282.95 개
라 디 오	84.90 대	103.11 대
재 봉 틀	65.57 대	77.52 대
흑 백 TV	32.29 대	79.98 대
컬 러 TV	-	5.38 대
선 풍 기	21.96 대	66.41 대
세 탁 기	-	40.13 대
카세트 녹음 기	5.45 대	34.17 대
카 메 라	2.84 대	8.92 대
냉 장 고	-	3.22 대

第7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이 北韓經濟에 미칠 영향

第1節 北韓의 經濟體制

이 地球上에 存在하는 共產國家들은 그 政權奪取方法에 立脚하여 그 類型을 分類하면 ①러시아 革命과 같이 그 自體가 하나의 獨自의인 性格을 갖는 類型 ②유고, 알바니아, 中共, 큐바, 캄보디아와 같이 武力鬪爭에 의한 革命類型 ③몽고, 北韓,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東獨과 같이 外部設計에 의해 強要된 革命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¹⁾

또다른 視角에서 內戰型和 輸入型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²⁾, 北韓 政權은 바로 소련으로부터의 強壓되고 設計된 輸入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體제도 소련의 스탈린型 模型을 그대로 移植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제를 踏習하여 왔다. 이는 第5章에서 본 經濟改革의 類型別 分類에서 본 John M. Montias의 分類에서는 動員的 經濟體制 (Mobilization Economic System)에, 그리고 J. Wilczynski의 分類에서는 官僚的 中央集權化 모델 (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鈴木輝二, 渡邊博二의 分類에서는 第1型에 屬하며, William A. Welsh의 이데올로기적 側面과 密接히 關聯된 焦點과 黨의 主導權과 獨裁政治에 대한 焦點을 둔 分類에서는 理念的으로 正統적이고 獨裁的인 類型 (The Category of ideo-

註 1) Robert C. Tucker, The Marxian Revolutionary Idea, op.cit, Chapter 5.

2) Thomas T. Hammond,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 (Yale University Press, 1975), p.45.

logically Orthodox and Monocratic)에 該當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經濟는 여타 共產圈國家들이 그들의 經濟改革의 濃度에는 差異가 있지만 모두 外延的成長에서 集約的成長 戰略으로 轉換하면서 經濟改革을 施行해오고 있는데 반해, 唯一하게 알바니아와 더불어 北韓經濟는 經濟改革없이 初期 社會主義 經濟體制인 中央集權的 計劃모델을 固守하여 왔다.

第 2 節 北韓經濟의 改革必要性

그런데 第 2 章 第 2 節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助長的 側面에서도 指摘하였듯이 北韓經濟도 現狀況에서 볼 때, 資源, 勞動力, 資本 등의 限界성과 漸增하는 資本 - 產出量比率 (Capital-Output Ratio)로 해서 不可避하게 集約的 成長戰略으로 轉換해야 할 經濟的 與件에 있다.

특히 南北이 分斷되기 以前인 1940年 統計에 의거하여 南·北韓間의 工業生産을 比較하면 表 <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側이 絶對的인 優位에 있었다. 그후 南北韓間의 資本主義 經濟體制와 소련式 中央集權的 計劃의 各己 다른 經濟運用方法의 實施結果는 南北韓間의 經濟力을 逆轉시켰을 뿐만아니라 그 經濟力 隔差를 大幅的으로 擴大시켰다. (表 15 參照)

게다가 近年에 와서도 第 2 次 7 個年計劃 (1978 ~ 1984 年)이 實施된지 3 년도 채 안되어서 計劃實現의 可能性이 희박해지자 1980年 10月 第 6 次 黨大會에서 “'80 年代 10 大展望 目標”를 提示함으로써 事實上 同計劃을 修正하여 別途의 目標를 設定할 만큼 經濟實績이

不振하였다. 第2次7個年計劃의當初目標가 9.6%였던것이實際로는 4.6%의低調한實績을記錄한것은 바로 이를立證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것도 또한北韓經濟의改革을强要하는要因으로作用하고 있다. 또한北韓과 같이人口도 적고國內市場規模도 적은小規模經濟에서는一般的으로 그것이資本主義經濟體制의國家이든社會主義經濟體制의國家이든外延的成長戰略(Outward-Looking Growth Policy)를採擇하여 왔다. 이는一般的으로國內市場이狹小한國家의 경우,輸出은輸入財源의調達을 통해供給面에서經濟成長을 뒷받침하여 주며, 한편으로는國內消費 및投

〈表 14〉 南北韓間 工業生産比較 (1940年 기준)

	南 韓	北 韓
化 學	17.9	82.1
金 屬	9.9	90.1
機 械	72.2	27.8
紡 織	84.9	15.1
窯 業	20.3	79.7
木 材	65.3	34.7
印 刷	89.1	10.9
食 料 品	65.1	34.9
其 他	78.1	21.9
電 力	8.0	92.0

資料：朝鮮銀行，朝鮮經濟年鑑 1949.

< 表 15 >

南北韓 經濟力比較 (1984 年基準)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G N P	億 弗	811.2	147.2
1 人 當 G N P	弗	1,999	762
發 電 設 備 容 量	萬 KW	1,419	591
精 油 能 力	日產萬 B/L	79	7
銑 鐵	萬 屯	883	508
粗 鋼	//	1,456	430
壓 延 鋼 材	//	1,523	339
自 動 車	萬 臺	33.7	1.8
造 船	萬 屯	400	21
工 作 機 械	萬 臺	5	3
化 學 肥 料	萬 屯 (成分含量基準)	140	70.6
主 要 合 成 樹 脂	萬 屯	115	9.2
시 멘 트	//	2,429	892
TV 受 像 機	萬 臺	885	24
冷 藏 庫	//	170	1 ~ 2
織 維	萬 屯	137.7	12.8

資料：南北韓經濟狀況比較 (國土統一院)，1985.

資의 內需要因과 더불어 海外로부터 外的需要로 作用하여 需要側面에서도 經濟成長에 寄與한다.³⁾

註 3) Bela Balassa, Trade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유고,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동독, 폴란드 등이 모두 對外貿易 依存도가 30~65% 水準에 있는 것을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또한 유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中共, 불가리아 등은 外國과의 直合作投資를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誘致하고 있다. (第4章 參照)

게다가 北韓은 그동안 主體思想이라는 自力更生原則을 模倣해 오면서도 其實은 소련과 中共의 經濟支援에 의해 그나마도 現在의 經濟力을 維持할 수 있을 만큼 中共과 소련으로부터의 經濟支援 依存도가 높아왔다.⁴⁾ 그런데 이러한 北韓經濟에 대한 經濟支援先인

〈表 16〉 소련의 經濟援助로 建設된 企業이 北韓의 總生産에서 點하는 部門別 比重 (1982年末 現在)

部 門	比 重
電 力	63 %
鐵 鋼	33 %
鑄 鐵	11 %
鐵 金 屬 壓 延 材	38 %
石 油 製 品	50 %
織 物	20 %
化 學 肥 料	14 %
鐵 鑛 石	42 %

註 4) 朴春三, 對外經濟協力面에서 본 北韓經濟分析, 國土統一院, (國統調 77-12-1352) 이에서 筆者가 調査, 分析한 바에 의하면 1950.6.25 以後까지 소련에서 導入한 借款額 5,300 萬弗은 同期間 北韓 總豫算의 22%에 該當됐고, 1950.6.25 ~ 53年 末까지의 動亂期에 주로 소련과 中共에서 導入한 無償援助로 받은 것이 同期間 總豫算의 40%였고 1954 ~ 1956 年間的 戰後 復舊 3 個年期間에 받아들인 無償援助額이 同期間 總豫算의 40%에 달했다. 이는 곧 北韓經濟에 대한 中·蘇의 影響力을 表示한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이 이미 1979년부터 大幅的인 經濟改革을 통해 市場社會主義 體制 (Market Socialism)로 轉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第4章 第1節 參照) 소련 또한 고르바초프 登場과 더불어 強力한 經濟改革의 意志를 밝히고 있다. (第4章 第3節 參照)

이처럼 北韓經濟를 둘러싼 對內外的 與件들이 北韓經濟를 改革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第3節 經濟改革의 兆朕

그런데 北韓經濟는 1984년에 들어와서 對外經濟關係와 關聯된 重大한 政策轉換을 試圖하고 있다. 즉 1984年 1月 25 ~ 27日間에 開催된 第7期 第3次 最高人民會議에서 「南南協助와 對外經濟事業을 強化하며, 貿易事業을 더욱 發展시킴에 대하여」를 採擇하여 對外開放政策을 追求할 것을 밝힌 바 있다. 同決議書의 內容을 보면, 「自力更生의 原則과 自立的 民族經濟의 基礎에서 對外經濟協力を 推進해 왔다」고 前提한 다음 「다른 나라들과의 經濟·技術協力과 協助를 한층 더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는 必要性을 強調하고 이를 위해 南南協力, 社會主義諸國과의 協力 및 資本主義 國家와의 經濟協力を 強調하였다.

또한 同年 9月 8日에는 全文 5章 26條로 된 合營法을 制定·公布하여 世界 各國과의 經濟·技術交流와 協助를 擴大 發展시킨다는 方針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合營法制定 以後 1985年 6月末 現在까지의 合作投資 誘致實績은 1984年 10月 8日 프랑스의 「베르나르」 建設會社와 평양에 觀光호텔을 合作·建設키로 하고 85年

2월에 그 起工式을 한것과 日本의 朝日商社株式會社 및 류꼬商社와 合作으로 평양에 樂園百貨店을 建立하여 85年2월에 開店한 것, 그리고 평양에 自動車修理工場을 세워 85年4월에 操業을 開始한것과 역시 在日朝聯系 교포 商工人들이 平壤에 있는 蒼光山 호텔에 커피숍을 꾸며 85年4월에 開店한 것을 합쳐 4件에 不過하다. 그나마도 合營法 第2條에서 合作投資 對象分野로 工業, 建設, 運輸, 科學, 技術에 力點을 두고 있는데 비해 3件이 觀光部門이라는 事實은 北韓이 意圖하는 投資誘致部門이 얼마나 不振한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先進國 資本이 開途國에 進出하는 動機는 ①資源動機 (Resources - Oriented Motives) ②費用動機 (Cost - Oriented Motives) ③市場動機 (Market - Oriented Motives)를 들 수 있다.⁵⁾ 이러한 先進國 資本이 노리는 動機에 비추어 볼 때 GNP와 人口를 基準으로 한 北韓의 市場規模가 中共을 100으로 했을 때 0.1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北韓의 低廉한 勞動力도 合營法 施行細則에서 「勞動의 雇傭・解雇는 勞動行政機關을 통해 施行한다」고 規定하여 企業의 自律的인 勞動管理를 規制하고 있으며 또한 資源面에서도 先進國의 資本을 誘引할 만큼 豊富하게 保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構造的으로 西方資本의 進出魅力을 具備치 못한 北韓의 經濟與件에서 그나마도 外資誘致에 成功하기 위해서는 中共이나 其他 東歐圈國家들의 先例에 비추어 볼 때, 經濟體制의 改革을 통한 受容能力 (Absorptive Capacity of Foreign Capital)을 갖추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

註 5) Raymond F. Mikesell, The Economics of Foreign Aid,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8), Chap. 1.

것이 또한 北韓經濟의 改革을 强要하는 要因으로 作用한다고 하겠다.

한편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꾀우는 金正日의 三大革命小組運動에서 技術革新을 强調하고 있다는 事實을 들어 北韓經濟는 이미 實用主義路線을 걷고 있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⁶⁾

이러한 推論을 뒷받침하는 것은 1984年8月4日字 北韓中央放送의 內容을 들 수 있다. 同放送에 의하면, 「…………經濟的 槓杆을 옹게 利用하여, 獨立採算制를 바로 實施함으로써 經濟를 科學的으로, 合理的으로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 企業所의 獨自性은 經營活動 結果에 얻어지는 利潤의 차지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利潤槓杆을 잘 適用하여 純所得에서 應당한 몫이 企業所에 남게 되어야 企業所 자체도 經理를 改善, 擴大하고, 從業員의 生活向上 對策을 주동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보다 높은 收益性을 위하여 …………… 努力하게 된다. …… 勤勞者들의 勞力的 熱誠을 物質的으로 刺戟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生活費, 賞金, 장려금을 基本要素로 하는 社會主義的 勞動報酬制를 옹게 適用하여야 한다. …… 社會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勞動結果를 낸 사람은 많은 報酬를 받고 生活를 빨리 向上시키며, 적게 일하고 質이 낮은 勞動을 한 사람에게는 적은 것이 차려지게 하는 것이 社會主義 分配原則의 本質的 要求이다. …… 勞動에 대한 政治, 道德的 刺戟을 앞세우면서, 生活費를 비롯한 여러가지 物質的 刺戟槓杆을 能動的으로 利用하면

註 6) Lee Chong-Sik,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p.126-134.

勤勞者들 속에서는 勞動的 積極性과 創發性이 높이 登場되는 生産의 量的・質的 指標를 달성하기 위한 鬪爭이 強化되며 서로 앞을 다투어 일하는 氣風이 높아진다. …… 勞動支拂에서 個人的 몫과 集團의 共同效果를 똑똑히 차리도록 하여 集團生産과 個人的 責任性을 올게 結合시키도록 하며, 都給制 形態를 넌리 받아들이는 것이 肯定的 意義를 가진다. …… 企業所 經營活動을 積極化하여 全般的 經濟管理事業을 改善・強化하는데 가장 効率的인 作用을 미칠 수 있는 政治的 槓杆의 하나는 價格이다. …… 價格을 도구로 삼아 管理・運營을 進行하지 않고서는 成果的으로 發展시킬 수 없다. 社會主義下에서 價格은 社會的 生産의 效果性을 높이기 위한 重要한 槓杆이다. 價格의 機能과 役割을 높이면, 生産物 生産에 대한 勞動支出의 低下, 社會的 生産의 發展速度와 效果性的 提高, 生産物의 品種 擴大와 質 提高, 資源의 合理的 利用, 都市와 農村의 經濟的 連繫의 圓滑한 實現, 勞動에 의한 分配의 正確한 實施등 經濟生活의 여러側面과 過程들에 積極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 企業所들이 自體의 具體的인 生産條件으로부터 出發하고 끊임없이 變化하는 需要와 供給關係를 敏感하게 打算해서 價格制定事業을 獨自的으로 進行하게 되면, 製品生産에 대한 諸般支出을 줄이고 企業所의 收益性을 높이기 위한 努力을 더욱 推動하게 되는 동시에 나라의 全般的인 價格制定事業에서 機動性과 伸縮性을 더 잘 保障하게 된다. 企業所에서 이러한 價格槓杆의 利用은 企業所의 獨自性과 責任性을 훨씬 높이며 經營活動에서 간간히 따지고 수지를 맞춰나가는 氣風을 더 잘 세우게 하며 모든 企業所들이 收益性 높은 單位로 되게 하는데 좋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등의 內容을 發表한 것은 北韓

經濟가 經濟改革을 指向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케 하는 것이다.

第4節 經濟改革의 抑制要因

그러나 第2章 第1節에서 他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의 抑制的 側面과 같은 要因이 北韓經濟에도 強하게 內在되어 있을 것이다. 特히 北韓은 지금까지 強力한 兵營과 같은 經濟·社會體制로 固着化된 環境에서 과연 經濟改革을 斷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앞에서 引用한 放送內容에 따르면 分明히 經濟改革의 움직임이 北韓經濟內에서 胎動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北韓의 經濟體制가 아직까지도 主體思想을 強調하여 主體思想은 物質的 刺戟보다는 人間的 要素 즉 人間的 思想改造를 통해 高度의 經濟成長을 維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人間이 決定的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 勞動大衆에게 思想革命을 強化시켜약 한다⁷⁾고 主唱하고 있다. 이는 中共에서 大躍進運動이나 文化大革命을 통해 經濟法則에 따르기 보다는 思想的武裝을 徹底히 한 人間에 의해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고 強調했던 毛思想⁸⁾과 그 脈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經濟가 지금까지도 大安의 事業體系나 天里馬運動, 靑山里方法

註 7) Kim Il-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New York, 1971).

8) Mao Zedong, Preface to Socialist Upsurge in China's Countryside, in Selected Works, Vol.5, pp.212-228, Quoted in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Colorado: Westview Press, Inc, 1982), p.33.

등 實用主義的 經濟政策과는 調和되기 어려운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는 事實도 中共의 紅路線의 政策과 一致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言及한 金正日의 三大革命小組運動의 하나인 技術革新을 實用主義路線으로의 轉換兆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徹底한 實用主義 反對勢力이었던 毛澤東도 한 때 「大技術革命」⁹⁾의 必要性을 力說한 바 있었다는 점을 想起할 때 金日成과 金正日의 技術革新強調만을 보고 實用主義 路線으로의 轉換이라고 보기 어려운 一面도 있다.

第 5 節 經濟改革의 展望

지금까지 北韓經濟의 改革의 必要性, 改革의 兆朕 및 改革의 抑制側面을 他社會主義 國家들의 經驗에 비추어 살펴 보았다.

第 2 章 第 2 節 經濟改革의 助長的 側面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北韓經濟도 構造的인 面에서 볼 때는 外延的 成長 戰略에서 集約的 成長戰略으로 轉換할 수밖에 없는 不可避한 時點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일단 北韓經濟의 改革을 前提로 했을 때, 그러면 北韓經濟는 과연 어떠한 方向으로 改革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다.

第 5 章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類型에서 본 經濟改革의 內容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 R.Selucky¹⁰⁾의 二分法에 의하면 北韓經濟는 中

註 9) Mao Zedong, Sixty Points on Working Methods in Jerome Ch'en, ed., Mao Pap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p.63.

10) Radoslav Selucky,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op.cit. pp.43-51.

共, 향가리, 유고와 같은 市場型改革 (Market Reform) 方向보다는 東獨型과 같은 테크노크라트型改革 (Technocratic Reform) 方向으로 나갈 것으로 判斷된다. 이는 北韓이 지금까지 固守해온 中央集權的計劃 모델 중에서도 더욱 強力한 兵營經濟體制를 一時에 大幅 修正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이외에도, 大部分의 共產圈에서의 經濟改革은 政治指導者의 更迭과 더불어 주로 일어났다는 다른 共產圈國家에서의 經驗에서 볼 때, 金日成의 主體思想 路線을 그대로 踏習하면서 經濟管理의 効率化를 내세우는 金正日의 政策轉換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金日成의 思想路線을 前提로 한 金正日에로의 權力承繼라는 事實에 立脚할 때는 經濟改革의 抑制的 要因이 助長的 要因보다 더 크게 나타날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北韓經濟가 처한 內外的 與件에서 經濟改革의 不可避性에 焦點을 두면, 이는 어디까지나 中共과 같은 實用主義路線의 새로운 勢力의 登場이 아닌 現政治權力構造內에서의 經濟改革이라고 할때는 市場改革 보다는 테크노크라트型 改革方向으로 나갈 것이라는 判斷을 더욱 確固히 해준다.

한편 1985年 7月 7日字, 소련 政府機關紙인 「이즈베스차」가 「中共經濟의 問題點」이라는 論評에서 近年 中共의 高度成長을 높이 評價한 反面, 中共이 現在 直面하고 있는 難局은 市場經濟의 導入, 非中央集權化, 計劃化의 緩和가 커다란 要因이라 指摘하고 中共이 社會主義로부터 逸脫한다고 批判한 바 있다.

또한 最近에 와서 고르바초프는 東獨經濟를 매우 높게 贊揚하고

있다.¹¹⁾ 이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은 콤비나트方式등을 採用한 東獨과 같은 모델로 改革해 나갈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最近 北韓과 소련과의 關係緊密化에 따라 中共 보다는 소련의 對北韓 影響力이 더 클 것이라는 事實과 앞에서 言及한 北韓의 對外與件을 同時에 고려할 때에도 北韓은 東獨型인 테크노크라트型 改革方向으로 나갈 것이라는 判斷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註 11) 金森久雄・小川和男, ゴルベチヨフ改革, op, cit, p.37.

参 考 文 献

1. Morris Bornstein (ed), Plan and Market;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3).
2. Paul R. Gregory & Robert C.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3.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4. Zbigniew M. Fallen Buchl (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Vol. 1.,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5. Morris Bornstein,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in East Europeans Economies post-Helsinki,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bo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GPO, 1977).
6. 木原正雄, ソ連邦の社会主義経済, (法律文化社, 1961)
7.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4th edition (London; Gorge Allen & Unwin, 1982).
8. R. Selucky,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Political Background and Economic Significa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9. P.G. Hare, H.K. Radice and W. Swain (ed).,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10. 平泉公雄, ソ連・東歐諸國にわける經濟計劃の新た ろるり, アシア經濟
1985.8 (アシア經濟研究所 ISSN, 0002-2942, 1985)
11.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Colorado: Westview Press, 1982).
12. Marer, Paul,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Selected Aspects of the
Hungarian Experience, Draft Paper for IMF European
Development, 1982.
13. Nuti, Demenico Mario, Industrial Enterprise in Palud
1973-1980: Economic Policies and Reforms, In Jefferies
1981.
14. Wiles, J.D.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Oxford:
Basic Blackwell 1962).
15. Alee, Nov,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Second
Revised Edition, (New York: Prederic A Praeger,
1969).
16. Kaser, Michael, Soviet Economies (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17. Robert, C. Tucker, The Marxian Revolutionary Idea (New
York: The Northen Library, 1970).
18. Knight, T. Peter., Economic Reform An Socialist Countries:
The Experience of China, Hungery, Romania and
Yugoslavia, (World Bank Staff, Washington, D.C.,
Papers: No.579).

19. Brus, Wlodzimierz, Problems of the incipient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Bank (Oxford, UK:1980, 9).
20. Gamarikow, Michael, Balance Sheet on Economic Reforms, in Reorientation and Commercial Relations of the Economics of Eastern Europe: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GPO, 1974).
21. Gregory Grossman, Economic Reforms: A Balance Sheet; Problems of Communism, (Washington D.C., US Information Agency, 1966).
22. Alee, Nove, The Soviet Industrial Enterprise, (in Jefferies 198 .)
23. Granick, David, Enterprise Guidance in Eastern Europe: A comparison of four Socialist Economies (New York: Princeton Univ. Press, 1975).
24. Portes, Richard, Hungary: Economic Performance, Policy and Prospects, in East European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GPO, 1977).
25. Dubey, Vined, Yugoslavia: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1975).
26. Schrenk, Martin, Cyrus Ardalan, and Natal A. El Tactswy, Yugoslavia: Self-Management Socialism and Challenges of

- Development, (Baltimore: John Hopkins Univ, 1979)
27. Vaclav Smil, Eating Better, Farming Reforms and Food in China,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rld Affair Journal Sept. 1985).
 28. Christine Wong, The Second Phase of Economic Reforms in China, (World Affair Journal, Sept. 1985).
 29. 村田泰田, 中ロの開放経済 (東京: 教育社, 1986)
 30. SHIGERU, ISHIKAWA, China's Economic System Reform: Underlying Factors and Prospects (World Development Vol.11, No.8, 1983)
 31. 白權鎬, 中共經濟 特區에 관한 研究 (KIET, 1985)
 32. Andrew, Zimbalist & Harvard T. Sherman, Comparing Economic Systems (Florida: Academic Press Inc., 1984).
 33. 平泉公雄, ハンガリ: 經濟改革の現段階と今後の展望 (ソ連・東歐學會年報, XIII, 1984)
 34. 平泉公雄, ハンガリ: 經濟改革の第3段階, (アジア經濟, 1985.8)
 35. 氣賀健三 et al., 地域研究講座: ソ連・東歐ロシパ, 東京ダイ個ヨント, 1970)
 36. Jan Marczewski, Crisis in Socialist Planning: Eastern Europe and the USSR,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4).
 37. Abraham Bergson and Herbert S. Levine (ed.), The Soviet Economy: Toward the Year 2000,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83).

38. 金森夕雄・小川和男, ゴルバチョフ改革 (東京: 時事通信社, 1985)
39. 重城康二, ゴルバチョフ改革の理論と實際, (世界週報, 1986.4.15)
40. William A. Welsh; Toward an Empirical Typology of Socialist System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ed.,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5).
41. Paul Gregory, Socialist and Nonsocialist Industrialization Patterns: A Comparative Appraisal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42. Frederic L. Pryor, Public Expenditure in Communist & Capitalist Nations (Homewood: Ill and Irwin, 1968).
43. John M. Montias, A Classification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Comparative Economic System: Essays on Political and Economies, ed., Carmelo Mesa - Lago and Carl Beck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75).
44. 欽木輝二, 渡邊博二, ソ連・東歐諸國の經濟管理制度 (社團法人: ソ連・東歐貿易會)
45. Abram Bergson, Planning and Productivity Under Soviet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8).
46.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 Structure and Performance,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47. Joseph Chung, The Economies of North & South Korea,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tlantic City, (N.J. Sept. 1976).
 48. Paul Gregory and Gert Leptin, Similiar Society under Differing Economic Systems: The Case of the Two Germany, Soviet Studies 24. (Oct. 1977).
 49. Li. Cheng Rui, Economic Reform Brings Better Life, (Beijing Review 22, July 1985).
 50. Thomas T. Hammond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 (Yale University Press, 1975).
 51. Bela Balassa, Trade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52. 朴春三, 對外經濟協力面에서 본北韓經濟分析, 國土統一院, 國統調 77-12-1352)
 53. Lee Chong-Sik,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54. Kim Il-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New York, 1971).
 55. Mao Zedong, Preface to Socialist Upsurge in China's Countryside, in Selected Works, Vol.5.
 56. 五井一雄, (ed), 現代社會主義 經濟體制論 (アジア經濟研究所, 1975)

57. Marie Lavigne, *The Socialist Economies of The Soviet Union and Europe*, (London: 1974).